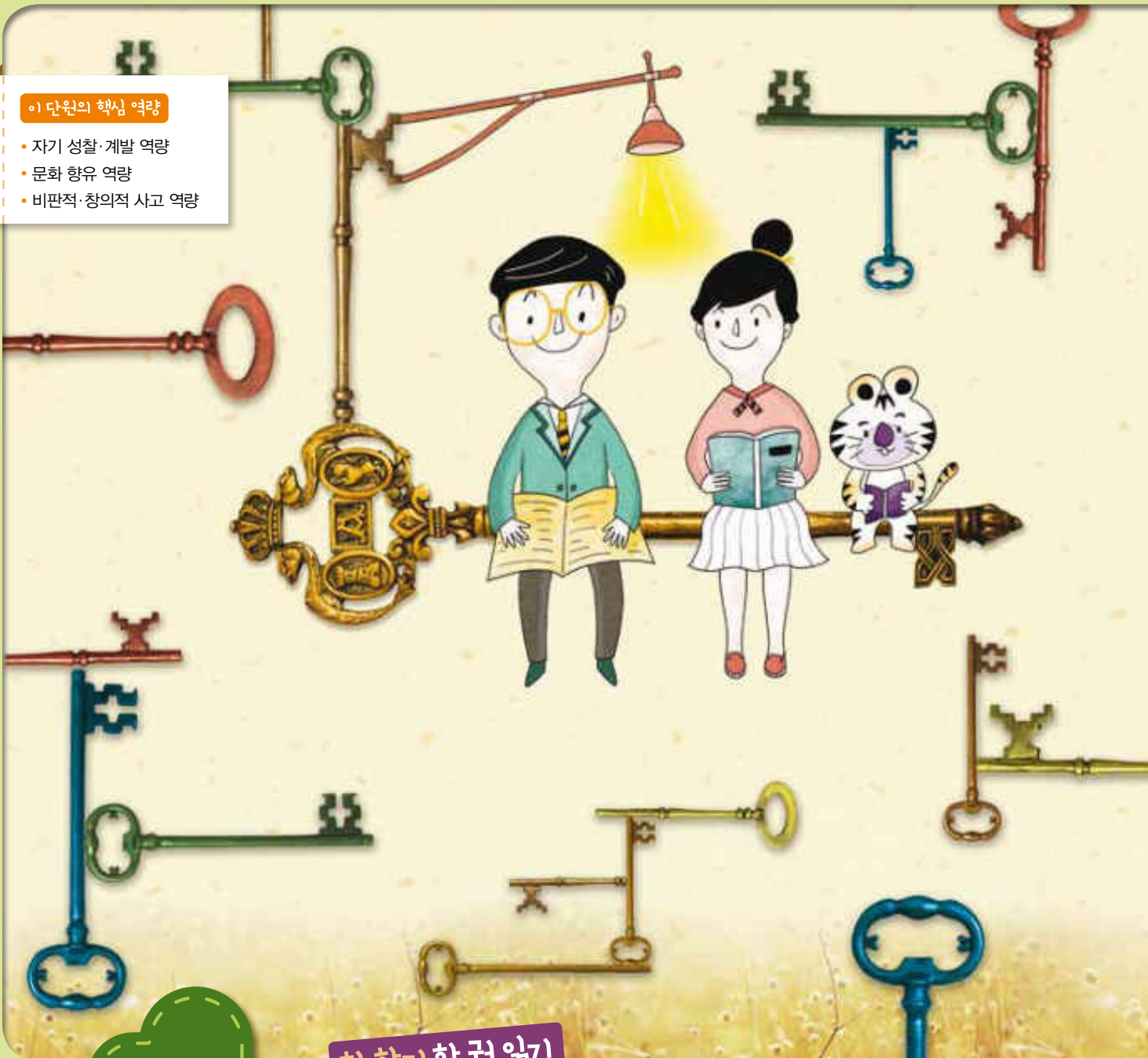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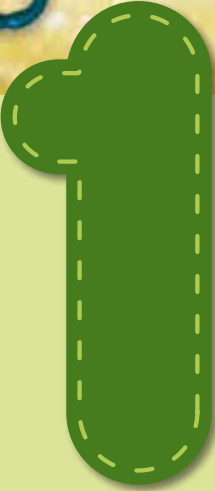


이 단원의 핵심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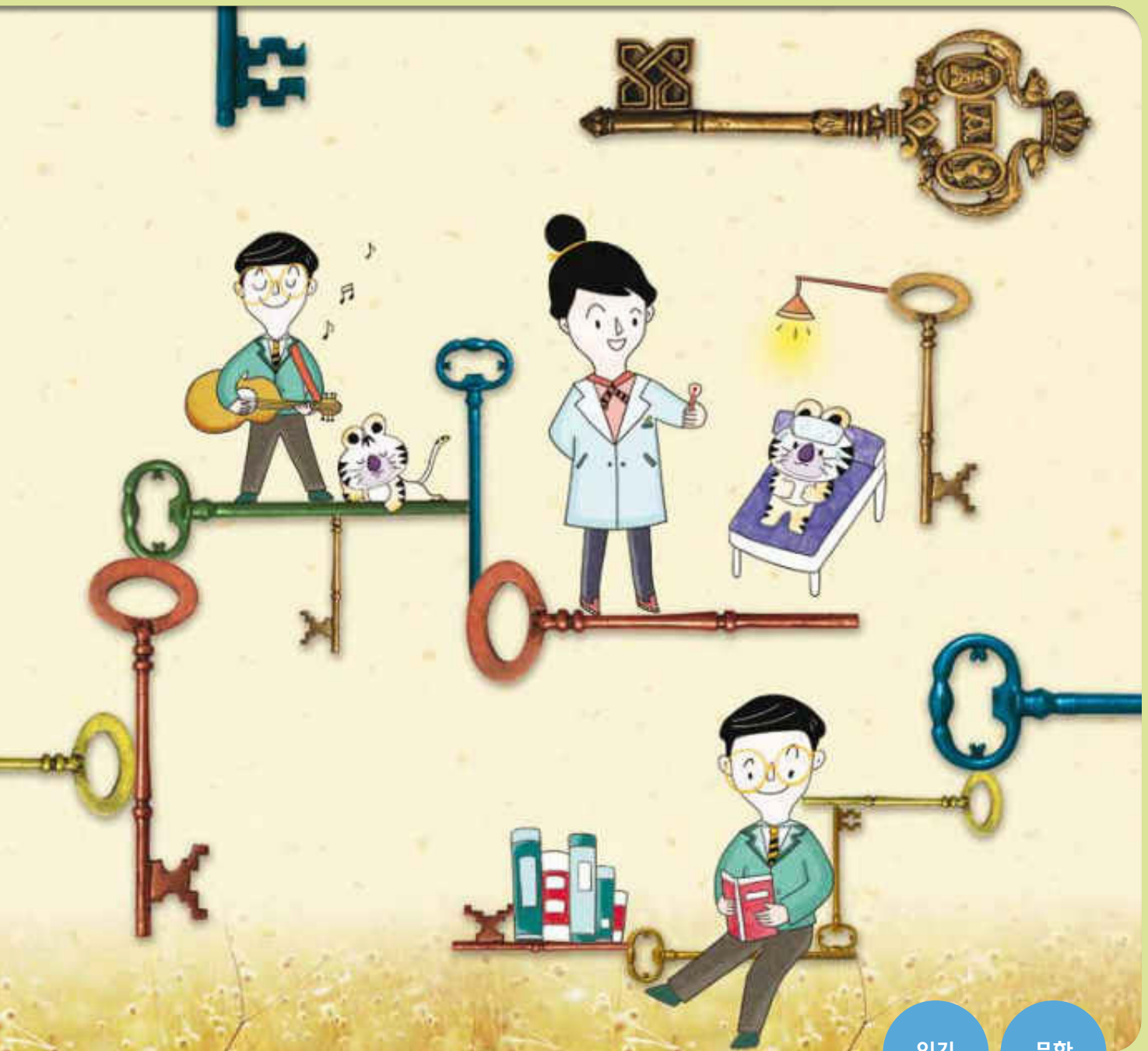
- 자기 성찰·계발 역량
- 문화 향유 역량
-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는 나의 힘



읽기

문학

(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1학기 한 권 읽기|

(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2학기 한 권 읽기|

대단원 길잡이

세계관(世界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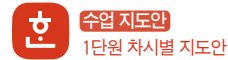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 즉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뜻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민족성·전통·교육·운명 따위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낙천주의·염세주의·숙명론·종교적 세계관·도덕적 세계관·과학적 세계관 따위의 여러 견해가 있다.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 쌓거나 갖추.

우리는 책을 읽으며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함양하며 올바른 독서의 효용 ① 가치관을 형성한다. 개인은 책을 읽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이는 곧 사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독서의 효용 ② 독서의 효용 ③ ▶ 독서의 효용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읽으면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구체화하여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담긴 다양한 삶의 모습과 세계관을 해석하고 평가하면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진로나 관심사 일을 꾸려나감. 「: 문학 작품 감상의 유용성」 ▶ 진로 관련 독서와 문학 작품 감상의 유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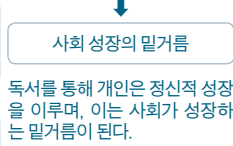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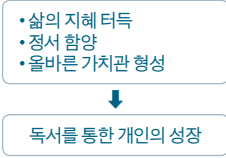
이 단원에서는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읽으며 진로 경험을 확장하고,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소단원 (1)의 학습 목표 나아가 스스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읽고, 생각을 나누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해 본다. 다양하고 주체적인 독서 활동으로 자기 성찰·계발 역량과 문화 향유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길러 보자. 소단원 (2)의 학습 목표 ▶ 이 단원 학습의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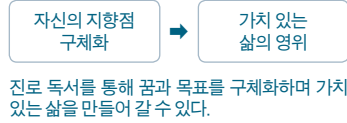
대단원 학습 목표

-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 책 한 권을 선정하여 읽으며 경험을 확장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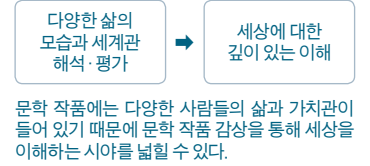
1. 독서의 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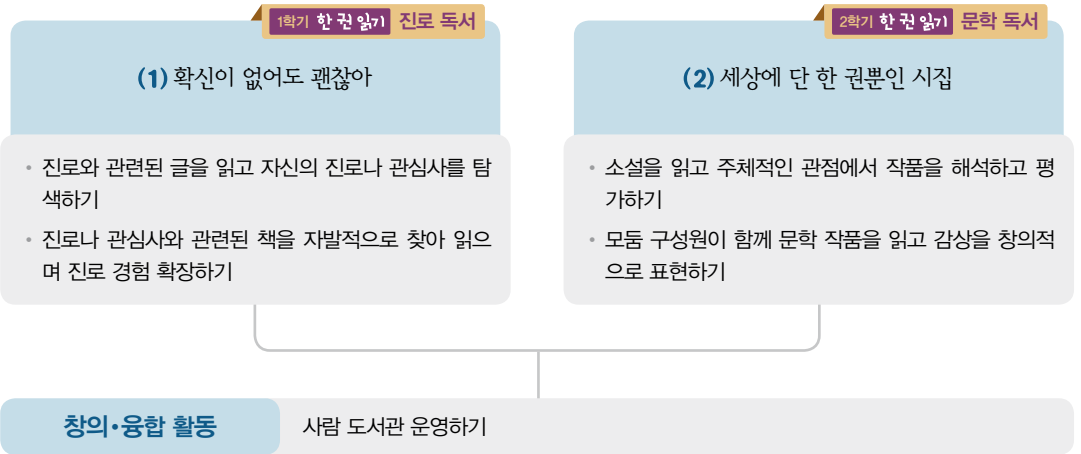
2. 진로나 관심사 관련 독서의 유용성



3. 문학 작품 감상의 의의



대단원 한눈에



지도 방법

- 자신이 평소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나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글을 읽은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책을 읽는 도중이나 읽은 후에, 독후감이나 감상문, 일기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읽은 책과 관련된 글을 써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문학 작품을 읽은 후에 단순히 줄거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해 본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게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며 스스로를 진단해 보고, 나만의 학습 목표를 세워 보자.

나의 학습 계획

1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은 적이 있나요?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input type="radio"/>
2	책을 읽으며 독서 일지를 써 본 적이 있나요?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input type="radio"/>
3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한 바를 창의적으로 표현해 본 경험이 있나요?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input type="radio"/>

나만의 학습 목표

나는 _____

_____ 할 것이다.

(1)



학습 자료
소단원 (1) 핵심 정리



학습 자료
소단원 (1)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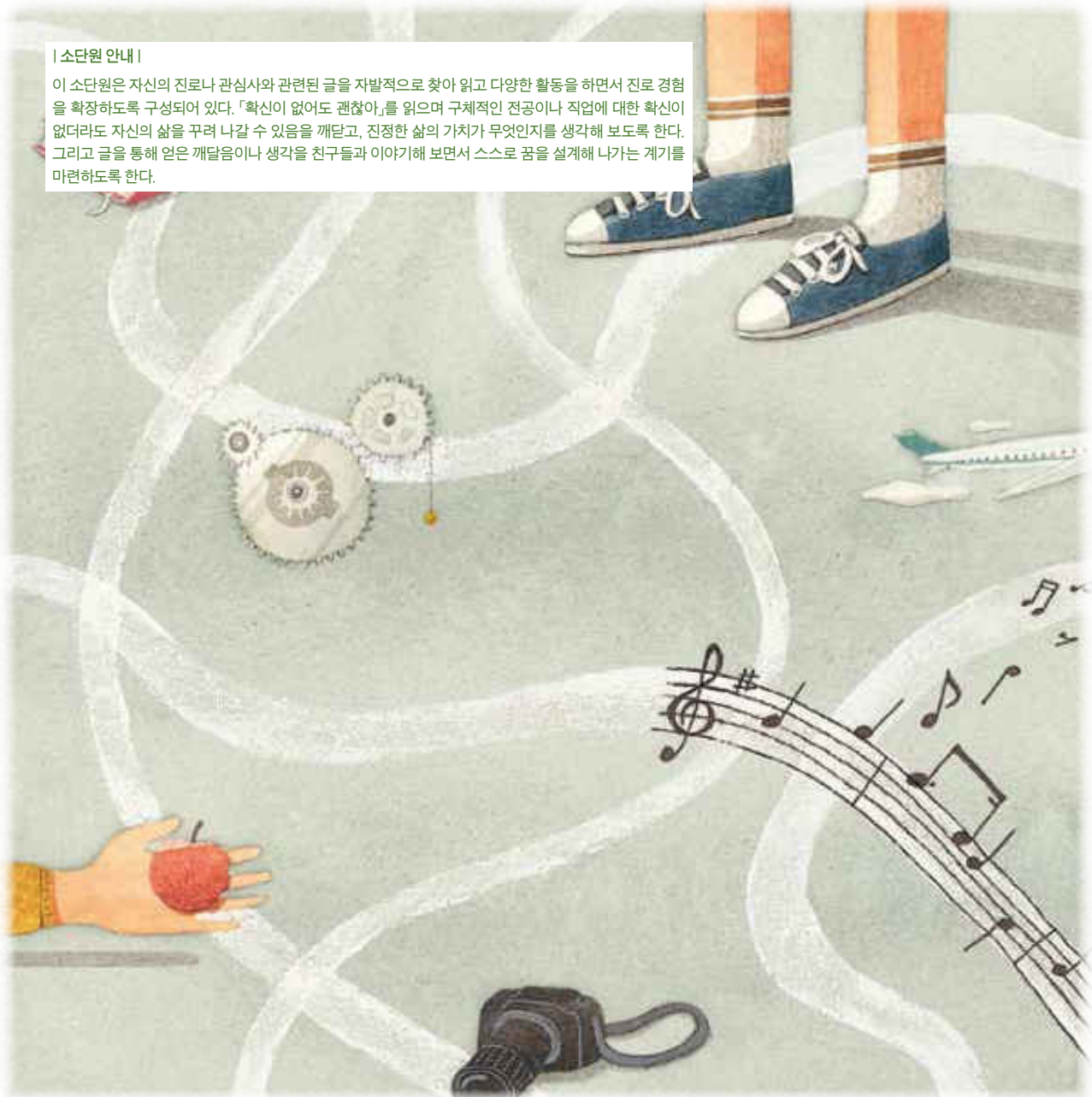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소단원 학습 목표

-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 책 한 권을 선정하여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진로 경험을 확장한다.

| 소단원 안내 |

이 소단원은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진로 경험을 확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를 읽으며 구체적인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글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서 스스로 꿈을 설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생각
열기

동영상 자료
생각 열기 영상

다음 영상을 보고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친구에게 소개해 보자.  

 <p>나침반은 왜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걸까?</p>	 <p>나침반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점점 자라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죠.</p>
<p>다섯 살 때, 나침반을 처음 보고 느꼈던 놀라움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p>	<p>나침반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점점 자라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죠.</p>
 <p>나는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p>	 <p>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호기심을. 그동안 보고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p>
<p>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하는데, 나는 호기심을 갖고 더 오래 보고, 더 오래 연구했을 뿐입니다.</p>	<p>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호기심을. 그동안 보고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p>

- 이비에스(EBS), 「지식 채널e」

지도 방법 다빈치, 달리,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천재라고 불리는 이들은 사실 주변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고 연구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다.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떠올려 보고 이를 친구에게 소개해 봄으로써 자신의 진로나 삶의 목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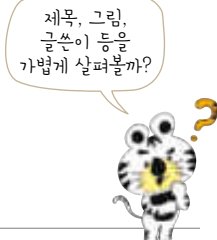
예시 답 저는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는지, 어떤 반찬이 있는 도시락을 선호하는지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도시락을 사서 직접 먹어 보며 평가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평소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는 데 흥미가 많은 데다가 앞으로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편의점 도시락에 더 많이 관심이 가고 더 연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증
찾기

지도 방법 제목, 그림, 글쓴이 등을 훑어보고 궁금한 점을 적어 보도록 한다. 이 활동은 '읽기 전' 활동이므로, 소단원의 내용을 짐작해 보고 자신의 짐작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 소단원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궁금증을 자유롭게 적어 보자.

- **예** 확신이 없어도 정말 괜찮을까?
- **예시 답**
 -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걸까?
 -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과 본인 속 삽화인 '열기구'는 무슨 관계일까?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다음은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글이다. 나의 진로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하며 글을 읽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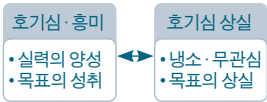
1. 제재 소개

이 글은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를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수필이다. 지적 탐구(공부)가 진학이나 취업의 수단이 됨으로써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감소시키는 현실을 비판하고, 진정한 꿈이란 진학이나 직업이 아니라 삶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김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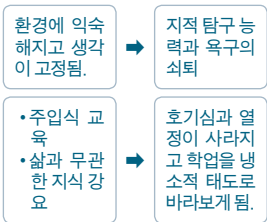
처음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 「」: 심리학자의 글을 인용하여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함.
한 것은 비단 공부에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 젊은이가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그와 정반대의 길로 이끌고 호기심과 흥미를 잃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삶
있다. 호기심을 죽이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물고 간다. 자기가 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는 쌔쌔한 태도로 비웃음 또는 그런 웃음
생각만은 절대로 갖지 말게 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추구할 만한 매력 청소년이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
을 가진 목표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이다.” ▶ 청소년에게 필요한 두 가지: 목표, 실력

● 호기심 유무에 따른 차이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칩센트미하이의 저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에 실린 글 (1934~) 긍정의 심리학, 몰입 이론 등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이다. 이 글을 읽으니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네 컷짜리 만화 한 편이 만평(漫評): 만화를 그려서 인물이나 사회를 풍자적으로 비평함.
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묻는다. “너 뭐하러 과외하니?” 아들은 대답한다. 「」: 청소년들의 목표 없는 삶, 호기심과 흥미를 잃게 만든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만화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아버지가 다시 묻는다. “좋은 대학 가서 뭐하려고?” 아들이 다시 ▶ 『어른이 된다는 것은』에서 연상된 만화
답한다. “과외하려고요.” 목표가 없거나 진정한 삶에 대한 호기심을 상실한 청소년의 대답

● 성장하면서 호기심이 사라지는 이유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고정관념을 갖거나 사고의 틀이 고정되면서
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사고의 틀이 고정될 때의 문제점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공부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실제로 겪어서 알게 된 것
가 교육에서 기억과 암기가 주로 되어 지식이 넣어지면 고정된 지식의 주입에 따른 문제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
상황에서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도구화된 공부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도구화된 공부로 인한 문제 ① 대학 입시나 취업을 위한 공부 도구화된 공부로 인한 문제 ②
처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감소시키는 현실에 대한 비판 ▶ 지성이 실종되는 이유

● 진정한 앎이 일어나는 과정



중간 진정한 앎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함.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갈 수 있다. 그 실마리는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태양계에서 궤도가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는 행성, 화성, 목성, 토성 따위
「미국 우주 과학 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드 해멜은 「」: 우연한 경험으로 적성을 찾아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나간 예
어릴 때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차멀미가 심했다고 한다. 주의를 돌리려고 창 ▶
밖을 보다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차멀미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어릴 때의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다.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소질이나 성격

▶ 진정한 일이 일어나는 과정

그러나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어린 시절 자신의 적성을 우연하게 깨달아 매진함으로써 큰 업적을 이룬 사람

어떤 일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해 나감.

5 있지만 '누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이 갈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뭐람?'이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 진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

진로를 확신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주는 위로의 글

10 을 읽었다. 그중 학창 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에 당혹해할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다.

평소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던 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에 사용된 글쓰기 방식 - 유추

15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다. 비행기나 고속 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

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지만 하면 된다. 방금 본 이정표

평안북도 서북부에 위치함시

도로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 주는 표지

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다. 목포라고 써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 적어도 남행선 상에 있으니까."

목표와 같은 방향의 길

▶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

20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뚜렷이 깨닫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음.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의

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함.

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공색하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향에 빠져드

직업이 인생의 목표일 수 없는 이유

25 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학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차

대학 입학 후 혼란과 방향에 빠져 드는 이유 중 하나

라리 목표가 뚜렷했던 수험생 시절이 행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또다시 취직

수험생 시절이 더 행복했다고 말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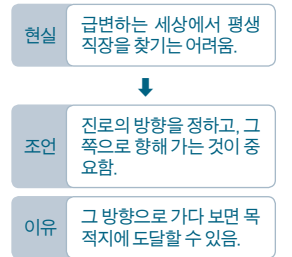
을 겨냥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 직업이나 대학이 인생의 목표일 수 없는 이유

중간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

청소년들이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을 듣고 당혹해 하는 까닭을 짐작해 보자.

예시 답 '가슴 뛰는 일'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입시와 취업의 목표 표로 삼고 시험공부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에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당혹감을 느낄 것이다.

●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의 조언





골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

「」: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

진정한 의미의 꿈

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직업 그 자체를 꿈으로 삼기보다 「장차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 사회와 시민 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싶다는 이상을 품어야 한다.」 똑같은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의

기를 쓰고 달려들어 독이 오른 눈

5 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는 전혀 다른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가진 사례②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

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적성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한 전제 조건

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뜻대를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

목표로 삼아 세우는 데

10 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

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얼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셋길을 찾아내고, 없는 길도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뚜렷한 사람의 특징 - 열정이 있음.

뚫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일을 하여 나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고비

「」: 열정에서 비롯되어 나온 힘임.

전진하는 힘도 바로 그러한 열정에서 솟아오른다.

▶ 진정한 꿈의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의 목표

골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 「생애의 발견」

| 핵심 정리 |

갈래	수필	성격	비판적, 설득적
주제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의 의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의견에 설득력을 더함. •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가 화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함. 		

김찬호(1962~)

사회학자. 학문과 삶을 잇는 언어를 탐색하면서 강연과 글쓰기를 하고 있다. 저서로 『문화의 발견』, 『사회를 보는 논리』 등이 있다.

● 진정한 꿈의 의미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
직업 그 자체가 아닌, 이상과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가져야 함.

●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한 조건

조건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함.



삶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열정이 생긴.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고 전진하는 힘이 솟아남.

글쓴이가 말하는 ‘열정’의 뜻을 찾아보자.

예시 글쓴이가 말하는 ‘열정’은 ‘꿈을 향해 난 비좁은 셋길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는 의지’를 말한다. 열정은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가질 수 있으며, 열정이 있으면 어려움을 딛고 나아갈 수 있다.

형성 평가
소단원 (1)
형성 평가

모의 평가
소단원 (1)
모의 평가 1~3회

서술형 평가
소단원 (1)
서술형 평가 1~2회

이해 활동

1

지도 방법 이 활동은 가상 면담 형식을 빌려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는 활동이다.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글쓴이의 마지막 말에는 글을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본다.

다음은 글쓴이와 가상으로 면담한 내용이다. 이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우고, 글쓴이의 마지막 말을 짐작해 보자.



예시 답 성장하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줄어드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공부가 진학이나 취업의 수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식** 이/가 딱딱한 형태로 머리에 주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삶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 을/를 일굴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적성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적성을 찾지 못한 청소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라는 이 글의 제목처럼
구체적인 직업이나 전공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직업이나 전공이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삶의 목표, 즉 꿈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 바로 가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목표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므로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조금 늦게 가거나 돌아간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표 활동

2

지도 방법 이 활동은 글을 읽은 후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글쓴이가 말하는 꿈과 그 꿈을 갖기 위한 조건을 찾아 정리해 본다. 그리고 꿈이나 직업, 삶의 가치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떠올려 보고, 자신의 꿈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 보자.

이 글을 바탕으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1) 글쓴이가 생각하는 꿈과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자.

• 꿈이란?

예시 답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 즉 가치 있는 삶

•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가지려면?

예시 답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함.



듣기 자료
활동 2-(2) 제시문 듣기

(2)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생각하며 <보기>의 태섭에게 해 줄 말을 적어 보자.

• 보기 •

봄날.
나무 벤치 위에 우두커니 앉아
<job 뉴스>를 본다.

왜 푸른 하늘 흰 구름을 보며 휘파람 부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호수의 비단잉어에게 도시락을 던져 주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소풍 온 어린아이들의 재잘거림을 듣고 놀라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비둘기 떼의 종종걸음을 가만히 따라가 보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나뭇잎 사이로 저머 드는 햇빛에 눈을 상하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나무 벤치에 길게 다리 뻗고 누워 수염을 기르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40억 인류의 job이 될 수는 없을까? - 장정일, 『job 뉴스』

태섭은 시를 읽으며 처음에는 그런 것도 직업이면 참 좋겠다 싶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직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했다.

“그거야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직업이 될 수 없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

김영아 선생님이 웃으며 태섭에게 물었다.

“돈을 받을 수 없으면 직업이 아닌가요?”

태섭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당연하지요. 어른들이 우리더러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는 것도 결국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날마다 힘들고 지겹다고 하면서도 일하는 이유도 돈을 벌어서 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 이남석, 『뭘 해도 괜찮아』에서

예시 답 물론 돈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돈만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자신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돈을 벌기도 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

(3) 나의 꿈을 한 문장으로 써 보자.



나는 아이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과 삶의 지혜를 나누고 행복한 경험을 함께

..... (하)는 참다운 교사 이/가 되고 싶다.



듣기 자료

활동 3 제시문 듣기

'한 권 읽기'는 스스로 선택한 책을 긴 호흡으로 읽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통합적인 독서 활동이다.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한 책을 읽으며 진로 경험을 확장해 보자.

지도 방법 이 활동은 만화가의 글을 읽은 후, 자신의 독서 경험을 떠올려 본 후, 독서의 긍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직접 선정해 보는 활동이다. 도서관이나 인터넷, 서점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접해 보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 필요한 책을 골라 보자.

3

다음은 한 만화가가 자신의 독서 경험을 쓴 글이다. 글을 읽고 나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하여 읽을 책을 선정해 보자.

어렸을 때 책이란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철학 서적은 어렵게만 느껴져 더욱 가까이하지 않았는데, 나 자신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책을 가까이하게 되었다.
책이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줌.

방황하던 시절에 나는 내가 누구이며, 나만 왜 이렇게 슬프고 고민이 많은지를 알고 싶었다.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은 내 고민에 명쾌하게 답해 주지 못했고, 나는 그 해답을 결국 책에서 찾게 되었다. 책에 모든 해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던 것 같다.
책이 인생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줌.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오직 나 자신의 몫이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독서는 내 인생에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

내가 방황할 때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준 책에서 얻은 것들을 이제 나는 만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만화를 그리는 이유 인생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이다.

- 심승현, 「파페포포, 탈레스를 읽다」에서

- (1) 이 글의 만화가처럼 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 경험이 어떠한 깨달음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나는 어렸을 때 옥상에서 별 보는 걸 참 좋아했어.
그러다 우연히 『우주여행』이라는 책을 읽고 우주에 호기심이 생겼어. 아직도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우주라는 공간을 탐구해 보고 싶어졌지.
그때부터 천문학자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어.

연습 단 성격이랑 진로 문제로 한창 방황하고 있을 때 『후회할 거야』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소설가, 프로 레슬러, 뮤지션 등 다양한 분야의 어른들이 자신의 십대 시절에 대해 쓴 글을 모아 놓은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과 시행착오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빛나는 경험임을 깨달았다.



도움

책을 고를 때에는 책 소개문, 출판 연도, 쪽수, 독자의 반응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읽을 책을 선택한 후에는 제목, 지은이, 목차, 독자 평 등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선정한 까닭을 쓰도록 한다.

(2) 나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한 책 세 권의 정보를 조사한 후, 가장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선정해 보자.

예시 답

책 제목	지은이	조사 내용
예 우주 레시피	손영중	일반인들이 어려움 없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주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2015년 출간, 304쪽)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하이타니 겐지로 저 / 햇살과 나무꾼역	소중한 아이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키워 내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담긴 일본 소설로, 교육자이자 아동 문학가인 하이타니 겐지로의 첫 번째 장편 소설임.(2008년 개정판 출간, 346쪽)
(영유아 교사를 위한 인성 지침서) 교사다움	최명희	영유아 교사를 위한 인성 지침서로, '교사다움'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나를 보다, 아이를 보다, 마추 보다, 나누다'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다룸.(2016년 출간, 215쪽)
(노래하는 교장 방승호의) 마음의 반창고	방승호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까지의 비법이 담긴 과짜 교장 선생님의 수필로, 사춘기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언도 함께 담겨 있음.(2017년 출간, 240쪽)

선정한 책

• 책 제목: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 지은이: 하이타니 겐지로 저 / 햇살과나무꾼역

선정한 까닭

실제로 교직에 몸을 담고 있던 작가가 1974년 자신의 17년간 교직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로, '아이들에게 배운다'라는 작가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다. 책을 읽으며 아이들의 세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은 진정한 교사의 역할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독서 기간

2000 년 3 월 20 일 ~ 2000 년 7 월 20 일



4 **활동지**
독서 일지 쓰기

4

선정한 책을 꾸준히 읽으며 독서 일지를 써 보자.

(40분 독서/10분 일지 쓰기)

도움

책을 읽을 때마다 독서 일지를 쓴다. 독서 일지 활동지는 부록 363~366쪽에 있다.

지도 방법

이 활동은 자신이 직접 선정한 책을 꾸준히 읽으며, 읽은 분량 만큼씩 독서 일지를 작성하며 독서 활동을 스스로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자신이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활동이므로 일회적이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독서와 독서 일지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시 답		20 . . .
책 제목	지은이	읽은 쪽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하이타니 겐지로 저 / 햇살과 나무꾼 역	11 ~ 45 쪽
오늘 읽은 내용	22살 신입 교사인 고타니 선생님이 H 공업 지대 안에 위치한 히메마쓰 초등학교에 부임한다. 히메마쓰 초등학교는 근처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고타니 선생님이 맡게 된 1학년 학급에는 목석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파리 기르기에 집착하는 '데쓰조'가 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쓰조'가 파리 기르기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 학교에 처음 부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새롭게 품은 생각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학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굽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환경만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내용	상처받은 히메마쓰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사라는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 활동지
인상 깊은 부분 적기

5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

지도 방법 이 활동은 독서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해 봄으로써 독서 활동을 내면화하는 활동이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한다. 더불어 자신이 선택한 부분이 왜 가장 기억에 남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1) 기억에 남는 부분을 옮겨 적으며 책의 내용을 마음에 새겨 보자.

예시 단 174쪽: 독일 빌레펠트에 세워진 의료 복지 시설에서 정신 장애자들과 평생을 지내 온 어느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하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한다는 생각을 합리주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인간의 생활 방식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이 아이들 나름대로 기쁜 마음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도 여기에 있습니다.”라고요.

.....

.....

.....

.....

.....

.....

.....

.....

.....

.....



(2) 한 사람씩 돌아가며 옮겨 적은 부분을 낭독하고, 그 부분이 기억에 남는 까닭을 말해 보자.

예시 단 이 구절이 기억에 남는 까닭은 앞으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주의를 인간의 생활 방식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부분을 읽고, 교육에서 효용 가치를 따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학교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얼마나 지식을 쌓았는지, 얼마나 유식해졌는지가 아닌, 얼마나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에 주목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용 활동

6

책을 읽은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진로나 관심사를 발표해 보자.

지도 방법: 이 활동은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에 대해 발표를 해 보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책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증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책 자체를 소개하거나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지 말고, 조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느낀 점 등 확장된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 내용을 조직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1) 나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인터넷, 방송, 인쇄 매체 등에서 조사해 보자.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조사한 내용
예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할까?	탐구 정신, 호기심, 관찰력, 천문학 지식, 수학·물리학 지식, 체력과 끈기, 창의성
국어 교사가 하는 일	주로 국어 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을 가르친다. 국어 사용의 실천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언어 표현과 창작 실습을 지도한다. 교과서 및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과제를 내주고 결과를 검토 및 지도한다.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의 성적을 평가한다. -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http://www.work.go.kr)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범 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무시험 검정 자격증으로, 교원 임용 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 교육부(http://www.moe.go.kr)

도움

발표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책 자체를 소개하거나 줄거리를 제시하기보다는 책을 읽고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하여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 포부 등을 자유롭게 담도록 한다.

(2) (1)에서 조사한 내용과 <조건>을 고려하여 발표 내용을 조직해 보자.

조건

-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문장(단어), 인물, 장소, 사건 중의 하나를 소재로 활용한다.
- 3~5분 동안 발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직한다.

예

발표 제목: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1. 천문학자를 꿈꾸게 된 계기
- 어린 시절 이야기
2. 천문학의 개념
3. 재미있게 읽은 천문학 도서
- 이번에 읽은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인용
4. 천문학자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
5.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 내가 하고 있는 노력
6. 나의 포부

예시 2

발표 제목: 책과 꿈, 그리고 길 찾기

1.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
2. 교사를 꿈꾸게 된 계기
3. 진로와 관련한 책 소개 - 인상 깊은 문장
4. 내가 생각하는 교사의 조건 - 마인드맵
5. 교사가 되기 위해 내가 하고 있는 노력
6.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사란

도움

발표할 때에는 청중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고, 목소리의 높낮이와 크기, 말의 빠르기, 강세 등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또한 바른 자세로 몸짓과 손짓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3) 다음 <조건>에 따라 발표 자료를 만들고, 연습을 충분히 한 후 발표해 보자.

• 조건 •

- 단어나 짧은 문장, 이미지, 사진 위주로 구성한다.
- 7~12장으로 작성한다.

발표 자료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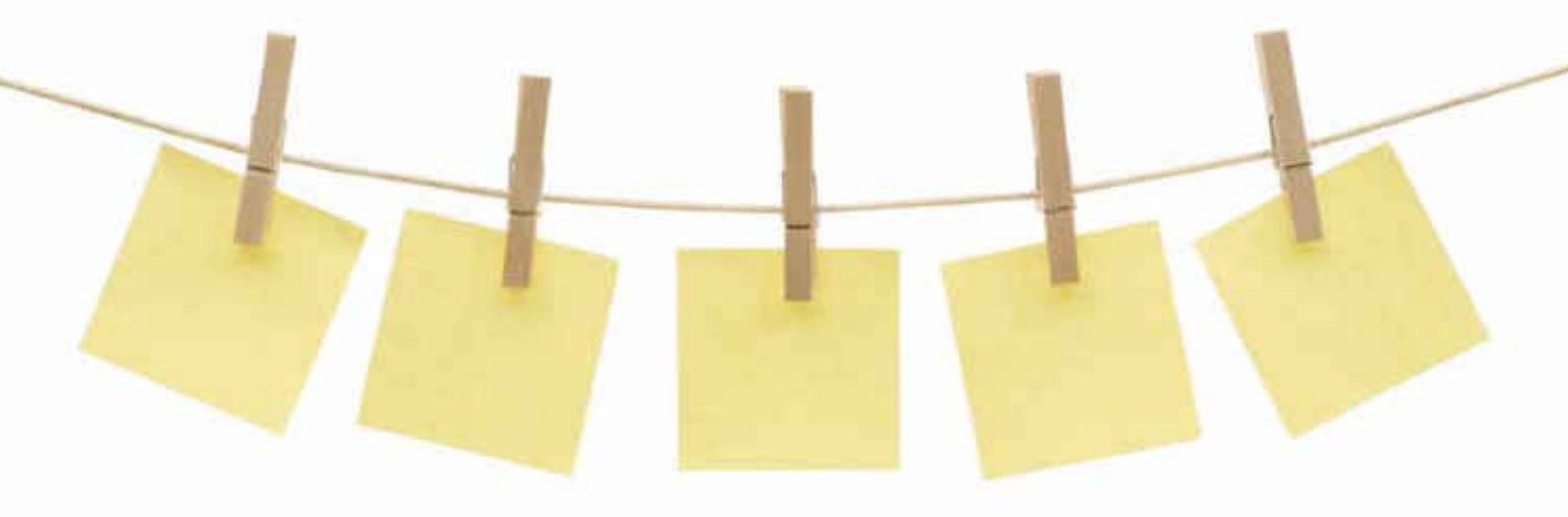
이시담 생략

(4) 가장 인상 깊은 발표를 한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쪽지에 적고, 학습 게시판에 붙여 보자.

예시
○○ ○○ ○○○ 에게

- 친구의 진로나 관심사: 국어 선생님
- 친구가 소개한 책: 『국어 선생님의 시 배달』(김영찬 외 2인)
- 해 주고 싶은 한마디: '국어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차근차근 준비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도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시를 많이 알고 싶어졌어.

△△ (이)가





되짚어
보기

소단원 학습을 하며 새로 안 내용이나 더 궁금한 점을 써 보며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자.

.....

.....

.....

.....

핵심
정리하기

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읽기

글쓴이는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향해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이므로, 삶의 궁극적 인 목표가 뚜렷하다면 전공이나 직업을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꿈

- 직업이나 전공에 머무르지 않음.
- 가치 있는 삶,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을 의미함.

2 진로 독서의 중요성

진로 탐색은 청소년기에 꼭 하여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때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두루 읽으면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를 성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스스로 선정한 책을 꾸준히 읽고 다양한 진로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 약점과 강점을 알아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독서를 하며 사고의 폭을 넓히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2)



학습 자료
소단원 (2) 핵심 정리



학습 자료
소단원 (2)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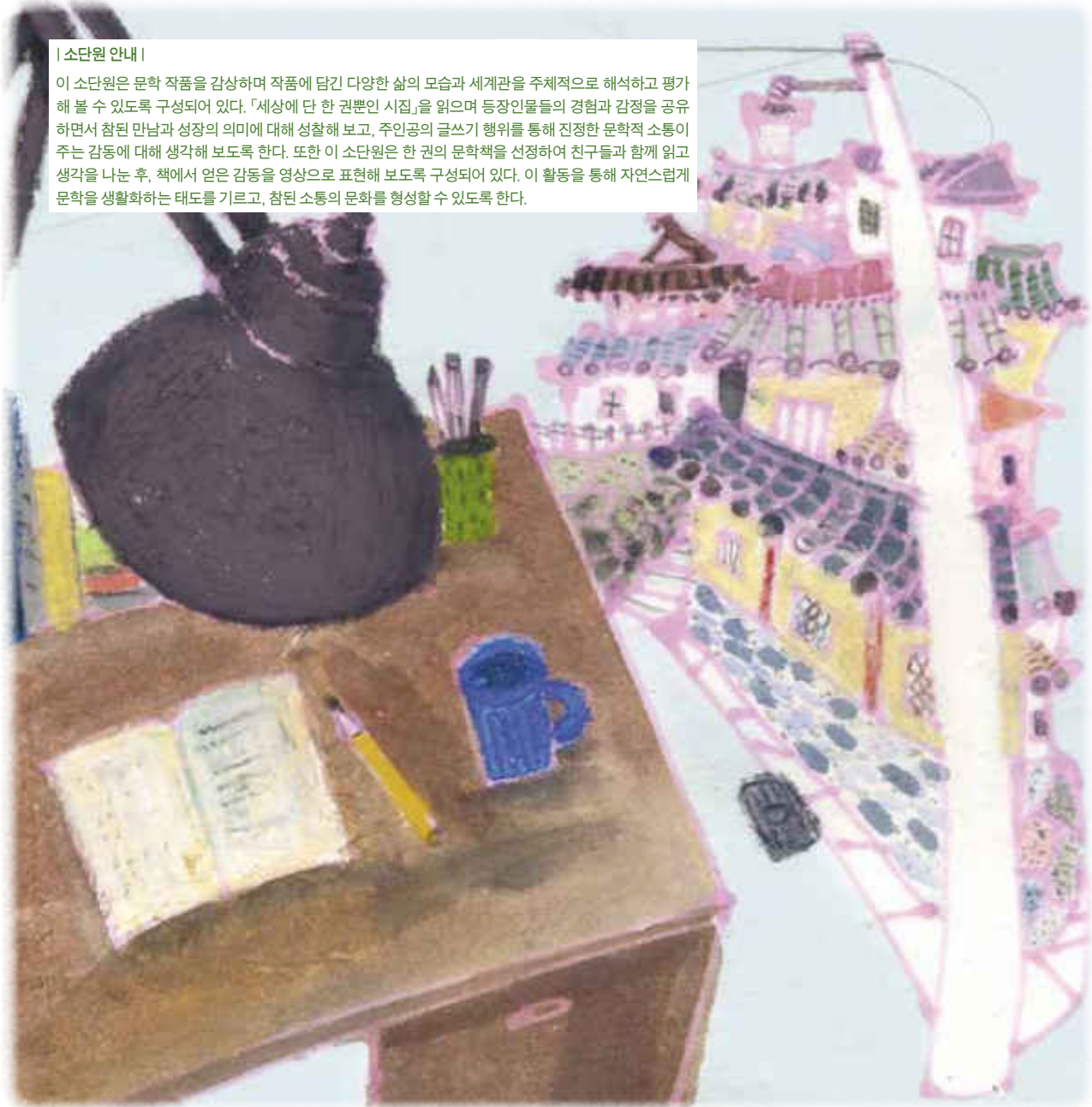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소단원 학습 목표

-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 책 한 권을 선정하여 읽고 문학 작품을 감상한 바를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소단원 안내 |

이 소단원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담긴 다양한 삶의 모습과 세계관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읽으며 등장인물들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참된 만남과 성장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고, 주인공의 글쓰기 행위를 통해 진정한 문학적 소통이 주는 감동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또한 이 소단원은 한 권의 문학책을 선정하여 친구들과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후, 책에서 얻은 감동을 영상으로 표현해 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고, 참된 소통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생각
열기

지도 방법 작품을 고를 때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가장 관심이 가는 책을 고른 후,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받은 느낌을 자연스럽게 말해 보도록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을 골랐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자신이 고른 책과 비교해 보고 다른 사람이 소개한 책에도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한다.

다음의 책 제목들을 살펴보고 가장 읽고 싶은 책을 골라 그 까닭을 말해 보자.



예시 답 • 얼마 전 윤동주 시인에 대한 영화를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읽으면 영화를 봤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을 것 같아.
• 『두근두근 내 인생』에는 어떤 두근거림이 녹아 있을까 궁금해서 읽어 보고 싶어.

궁금증
찾기

지도 방법 제목, 그림, 작가 등을 훑어보고 이것들과 관련하여 떠오른 궁금증을 자유롭게 적어 보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글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졌던 궁금증이 풀리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심화 학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 소단원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궁금증을 자유롭게 적어 보자.

- **여기** 왜 시집이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을까?
- **예시 답** • 세상에 한 권뿐인 시집에는 어떤 시가 실려 있을까?
• 이 작품은 시집을 소개하는 글일까? 아니면 시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글일까?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박상률

다음은 청소년기의 순수하고 애뜻한 감정을 그린 소설이다. 주인공이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지 살피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 제재 소개 |

이 글은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겪는 첫사랑의 순수하고 애뜻한 감정을 잔잔하게 서술한 성장 소설이다. 소설가인 주인공 '나'가 고등학교 시절 좋아하는 '현아'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구성으로 작품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가 겪은 성장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또한 '나'가 첫사랑의 상처로 인해 방황의 시간을 거쳐 소설가로 서의 삶을 살게 되는 과정에서 문학이 삶에 미친 영향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주인공이 성장기에 겪은 사랑의 경험을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고리로 하여 현재로 연결해 냄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나'의 직업을 추측해 보자.

예시 답 '마감 날짜를 이미 넘긴 원고가 있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에서 '나'가 글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 즉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성장 소설

어린 등장인물이 유년에서 소년으로, 다시 청년으로 자라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환경 등을 깨우치는 과정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대체로 도덕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혹은 청소년)의 갈등으로 시작하여 그가 스스로의 미숙함을 깨닫고 정신적인 성숙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세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발단 마감 날짜를 이미 넘긴 원고가 있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겨우 원고 '나'의 직업이 글을 쓰는 일임을 알 수 있음. 쓰기를 마치고 기지개를 켜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같이 웬 전화지?”

며칠 전부터 원고 독촉을 해 대던 잡지사 기자는 아직 출근할 시간이 아니었다. 새벽이나 밤중에 걸려 오는 전화는 대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때가 많아 나는 누군가가 워낙하다거나 돌아가셨다는 소식 조금은 긴장한 채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거기…….”

여자였다. 그러나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나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웠다. 나는 누구냐고 물으려다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 내 버려 두기로 했다. 사물을 어렵잡아 헤아리기

“네, 말씀하세요.”

“거기 글 쓰시는…….”

나를 찾는 전화인 것 같기는 했다.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참을 머 소설적 기능: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장치 ① 못거렸다. 나는 이 여자가 누굴까 하며 열심히 머릿속을 더듬었으나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용건을 말했다.

“둘려 드릴 것이 있어서요…….”

전화를 한 용건. '여자'가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 뜬금없는 소리였다. 나는 잠시 멍해져서 다시 침묵했다. 여자가 잠깐 사이를 둔 갑작스럽고도 영동한 뒤 더듬더듬 말했다.

“스무 해 동안, 갇혀 있던, 말들이예요…….”

소설적 기능: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장치 ② ‘스무 해 동안이나 갇혀 있던 말들이라고?’

들을수록 알 수 없는 말뿐이었다. ▶ 낯선 여자에게 전화가 걸려옴.

여자는 내 사정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전화를 끊었다. 끝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나는 도깨비에게 홀린 것만 같았다. 웬 여자가 느닷없이 새벽같이 전화하더니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 도깨비에게 홀린 듯 나가겠다고 승낙함. 나타나는 모양이 아주 뜻밖이고 갑작스럽게

가늠하다 사물을 어렵잡아 헤아리다.

원래 오전 약속을 하지 않는 '나'가 마치 도깨비에 홀린 듯 낮선 여자와 약속을 한 것이 평소답지 않아 헛웃음이 나온다.

5 는 나가겠다고 했다. 누구인지도,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 자신이 우습기만 했다. 원래 나는 오전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도깨비에 홀린 듯하다고 한 이유① 사사로운 일은 물론 출판사 일 따위를 보러 나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약속을 잡아 나간다. 굳이 복잡한 아침 출근 시간에 바깥에 나갈 까닭이 없는 것이다. 더더구나 오늘은 밤을 꼬박 새우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른 아침의 일방적인 약속을 도깨비에 홀린 듯하다고 한 이유②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우습기만 한 이유

'아닌 밤중에 흥두께지, 이게 뭐야? 나한테 돌려줄 게 뭐지? 어떤 여자지?' '별안간 영동한 말이나 행동을 함'을 나타내는 속담 ▶ 도깨비에 홀린 듯 낮선 여자와 약속을 잡음. 나는 전자 우편으로 서둘러 잡지사에게 원고를 보냈다. 이어 「졸음을 이기느라 「: 여자의 정체를 물려준다는 물결에 대한 공금증이 큼을 알 수 있음. 뻑 「: 여자의 정체를 물려준다는 물결에 대한 공금증이 큼을 알 수 있음. 뻑해진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서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밖에는 눈이 뒤에 이어지는 사건에서 '눈'은 '현아'를 떠올리는 소재로 쓰임. '현아'와의 마지막 만남 때도 눈이 왔음. 퍼붓고 있었다. 내가 탄 버스는 조심조심 '나의 공금증이 얼마나 크지를 보여 줌.' 눈길을 달렸다. 눈이 내리는데도 워낙 서둘러 집을 나선 까닭에 약속 시간보다 꽤 이르게 여자가 일러 준 찾집에 도착했다. ▶ 낮선 여자와 약속한 장소로 나감.

15 여자는 나보다 더 먼저 나와 있었다. 내가 찾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이어서 찾집에 다른 손님은 없고 찾집 주인은 아직 아침 청소 중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 버리는 줄 알았다. 현아 여자의 정체를 알고 놀람. 였다. '나의 첫사랑' 옷차림과 몸피 몸의 굵기는 예전과 다르지만 얼굴은 거의 스무 해 전 여고생 때의 청순 하던 소녀 모습 그대로인 현아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20여 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①

20 "현아……." 이름 말고는 다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현아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 손을 내려다보며 마주 잡았다. 여전히 희고 맑은 손이었다. 찌릿찌릿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다. 문득 그 옛날 현아가 손을 내밀어 첫 약수를 청하던 때가 20여 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② 떠올랐다. 내 느낌은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가 있었다. ▶ 낮선 여자가 '나의 첫사랑' 현아임이 밝혀짐.

25 우리 둘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현아의 두 눈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수처럼 크고 맑았다. 초롱초롱하던 눈빛이 이젠 축축하게 젖은 느낌이 드는 것 말곤 예전 그대로였다. 한참 지나자 현아의 손에 땀이 뻗 걸 느낄 수 있었다. 현아가 슬며시 손을 빼더니 탁자 위의 누런 봉투를 집어 들었다. 현아 역시 '나'와의 만남에서 긴장하고 있음이 드러남.

30 이내 곧 현아는 봉투 속에서 공책을 한 권 꺼낸 뒤 다짜고짜 내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공책을 받아 든 뒤 겉표지를 펼쳤다. 속표지에 검정 만년필 글씨로 "이 세상에 단 한 권 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라고 현아가 '나'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함. 책의 겉표지 다음에 붙이는 얇은 종이로 된 표지

여자가 전화로 말했던 '스무 해 동안 갈혀 있던 말들'의 정체

●도깨비에 홀린 듯한 약속

- '여자'의 정체를 알지 못함.
- '여자'와 어떤 일로 만나는지 모름.
- '나'는 오전에는 약속을 잡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한 '여자'와 만날 약속을 함.

●'나의 공금증'과 이로 인한 행동

- 공금증
- 여자의 정체
- 돌려준다는 것의 실제



졸음을 참으며 아침도 제대로 먹지 않고 서둘러 약속 장소로 나감.

●'여자의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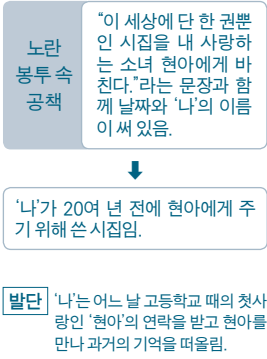
- 20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
- 여고생 때의 청순하던 소녀의 모습 그대로임.
- 희고 맑은 손, 크고 맑은 눈, 초롱초롱한 눈빛



'나'가 20여 년 전에 사랑했던 '현아'임.

- 몸피 몸통의 굵기.
- 속표지 책의 겉표지 다음에 붙이는 얇은 종이로 된 표지.

●여자가 주려 한 물건의 실체



씩어 있고, 그 아래에는 날짜와 내 이름이 휘갈겨져 있었다.

20여 년 전에 '나'가 현아에게 주기 위해 쓴 시집임을 알 수 있음.

"아!"

현아가 봉투에서 꺼낸 공책의 정체를 알게 된 '나'의 탄식

나는 짧은 신음만 내뿜은 채 공책을 뒤적여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해 겨울의

20여 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 과거 회상의 매개체

찬 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 현아가 '나'에게 시집을 돌려주려 함.

20여 년 전에 겪은 실연의 기억이 되살아남.

전개 과거 회상의 시작 고등학교 시절,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 어느 때부

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학년이 높아지며 점차 학교생활이 지긋지긋해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오로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듯이 '대학, 대학' 하는 분위기가 싫어지면서였다.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오로지 대학 진학을 위해 주입된 지식을 암기하는 기계처럼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가리킴.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스스로의 학습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을 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함.

생각했다. 그런 때 시를 만난 게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라 생각했다.

'시를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시는 바로 인생이고, 인생은 바로 시야. 난 기어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쓸 거야.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쓸 거야!'

고등학교 시절 '나'가 쓰고 싶었던 시

나는 기고만장해 있었다. 나는 이미 세상을 다 알아 버린 것만 같았고, 그저 대

일이 뜻대로 잘될 때, 우뚝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해

학에 가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학생들 모두 줌스럽게만 느껴졌다. ▶ '나'가 시를 쓰게 된 계기

도량이 좁고 웅충하게만

그렇게 시를 쓰네 문학을 합네, 하며 이 책 저 책을 난독하다가 그만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책의 내용이나 수준 따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무 책이나 닦치는 대로 마구 읽다.

탈속한 듯한 주절거림과 선승들의 거침없는 기행담에 폭 빠져들었다.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혹은 속세를 벗어나

기이한 행동을 전하는 이야기

그랬으니 학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내가 당연히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들어갈 줄 알았다.

"니는 없는 촌살림에 고등학교를 도시로까지 보냈은게 꼭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되야. 알았제?"

아버지의 그런 바람과 달리 나는 대학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가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깟 대학 나와서 뭐한다고 저러실까? 나는 밥벌이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할 사람인데…….'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쓰는 일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쳐왔지만 나는 이미 대학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뜻도 모를 어휘를 조합해서 탈속한 도인들의 잠언적인 냄새가 그럴싸하게 묻어나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짜서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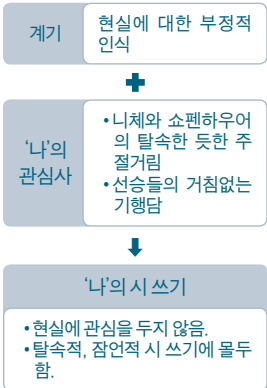
는 시 쓰기에 몰두했다.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했다.

아궁이 속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방이나 숯 따위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

●'나'가 시를 쓰게 된 계기와 과정



• **기고만장하다** 일이 뜻대로 잘될 때, 우뚝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하다.

• **난독하다** 책의 내용이나 수준 따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무 책이나 닦치는 대로 마구 읽다.

• **탈속하다**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혹은 속세를 벗어나다.

• **잠언**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너의 육신을 보았는가

나무를 의인화함.

검은 재 몇 중에서 남은 너의 모습

바로 너의 인생이다

나무여,

5 바람 소리 길게 듣지 말라

내가 쓴 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시였다. 나무여, 바람 소리 길게 듣지 말라니! 나는 내가 시적 재능을 타고난 게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화자찬(自畫自讚)

‘히히, 누가 이런 표현을 생각이나 하겠냐!’

10 나는 마치 신들린 듯이 시를 써 갈졌다. 시를 통해 못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말씀을 들려주어야만 할 것 같아서였다. 시인을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공자, 맹자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믿었다. 그러나 시란 마땅히 세속의 탁한 삶에 눈먼 이들에게 뭔가 그럴싸한 경구를 들려주어야 하는 걸로 알았다. 이 세상의 모든 풍경이 다 시시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 현아를 알았다. ▶ ‘나’는 시에 몰두하여 창작에 힘씀.

불교, 기독교, 유교 등의 성인들보다도 시인을 더 높게 평가함.

출세, 명예, 부귀, 권력 등을 탐하는 사람들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

「」: 현아를 만나기 이전에 ‘나’가 생각했던 시의 본질

15 현아는 같은 반 친구가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 딸이었다. 그 친구와 나는 고등 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 그래서 둘은 겉으로나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어느 날 친구 하숙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우리보다 한 학년 아래라는 현아를 보았다. 순간 속으로 남몰래 도인인 척했던 나 자신의 바탕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검정 교복, 그리고 가는 목에 둘러진 하얀 깃. 오뚝한 코에, 아침 햇살을 머금은 이슬처럼 반짝거리는 눈. 나는 현아를 제대로 바라보기는커녕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현아가 희고 맑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일정한 방식과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하고

서로가 숙내를 털어놓는 사이가 아니라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이

공부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도인처럼 세속에 관심이 없었던 생각이 무너지.

현아의 외양 묘사.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나타남.

현아에게 첫눈에 반함.

20여 년이 지난 현재 ‘나’가 현아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와 겹쳐지는 장면임.

“오빠, 시 쓴다면서? 야, 멋지다!”

현아가 내 손을 쥐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하며 어지러웠다. 이어 현아가 손을 가볍게 흔들기까지 하자 내 온몸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발 딛고 서 있는 바닥까지 흔들리는 것 같고, 급기야 지구가 흔들리고 온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 현아에게 온 마음을 빼앗긴 ‘나’의 심정을 점층적으로 표현함. (온몸 → 바닥 → 지구 → 온 세상)

친구가 현아에게 내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현아는 내가 시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애써 티를 내지 않았지만 친구는 내가 하는 짓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려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이 남몰래 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낌.

● ‘나’가 처음 쓰고자 한 시

- 현실과 동떨어진 탈속적, 잠언적, 교훈적인 시
-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
- 세속의 탁한 삶에 눈먼 이들에게 들려줄 그럴싸한 경구 같은 시

● 현아와의 첫 만남

현아의 외양	가는 목, 오뚝한 코, 반짝거리는 눈, 희고 맑은 손
현아와의 악수	•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어지러움. • 온몸이, 바닥이, 지구가,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함.



‘나’는 현아에게 첫눈에 반하여 온 마음을 빼앗김.

- 경구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
- 하숙하다 일정한 방식과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하다.

“오빠,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뜻도 알쏭달쏭하고 재미도 없잖아. 그런 시 말고,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 줄 수 있는 시를 써 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 고달픈 현실을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

나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 줄 수 있는 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뀜.

▶ '나'가 현아를 만나 첫눈에 반함.

5

그 뒤 나는 그다지 불일도 없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친구 하숙집, 아니 현아네 집에 들렀다. 스스럼없고 싹싹한 소녀인 현아는 친구가 없어도 나를 거리낌 없이

현아를 보기 위해 친구 하숙집에 자주 갔음을 알 수 있음.

현아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함.

대해 주었다. '오빠'라는 소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했고, 자기가 본 책

스스럼없고 싹싹한 성격이 드러남.

이나 영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나는 본디 여동생이 없는 터라 현아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특히 맑고 큰 눈을 바라볼라치면 마치 커다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곧 그 눈 속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는 바야흐로 막연하기 짝이 없

현아를 만나기 전의 주된 관심사이자 시의 소재

는 삶이니 세상이니 하는 것은 뒤로 제쳐 놓고 눈앞의 현아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

현아를 만난 이후의 주된 관심사

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현아를 보러 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속으로 아예 친구가 집에 없기를 바라며 찾아가

10

'나'가 현아의 말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든 까닭을 말해 보자.

예시 답 '나'는 '세속의 탁한 삶에 눈먼 이들에게 들려줄 그럴싸한 경구' 같은 시를 써 왔는데, 현아의 말을 듣고 난 후 시는 세상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솔한 내용을 담아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현아를 만나기 전후로 변화된 '나'의 관심사와 시의 성격 변화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사: 막연하기 짝이 없는 삶이나 세상, 추상적인 대상 • 시: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뱉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사: 눈앞의 현아 • 시: 현실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시



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도 없고 현아도 없는 날엔 괜히 심통이 나기도 했다. 혹시
마땅치 않게 여기는 나쁜 마음 질투하는 마음
 들이서만 영화라도 보러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는 현아네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열병을 앓았다. 현아를 만난 날이면 현아를
어떤 일에 몰시 흥분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만난 느낌이 좋아서 그랬고, 현아를 만나지 못한 날이면 애가 타서 그랬다. 좋은
초조한 마음속
 5 느낌은 좋은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고, 애가 탄 느낌은 어떻게든 현아에게 전
 달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펴 놓고 땀가를 끼적
속을 태우며 조금하게 구는 일 「: 현아에 대한 감정을 시로 표현하게 됨. 글씨나 그림 따위를 아무렇게나 쓰거나 그리게
 이계 되었다. 그동안 끼적거리던 시와는 다른 시를 끼적거리게 된 것이다. 막연히 내
이전과는 다른 내용의 시를 쓰게 된 것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뱉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현아를 만나기 이전의 시들 현아를 만난 이후의 시들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들이 튀어나왔다.

10 그때부터 나는 연애 감정보다 더 소중한 감정은 이 지상에 없는 거라고 여기며
 열심히 연애시를 써 갈졌다. 어느 순간이 지나자 연습장에 따로 쓸 필요도 없었다.
 공책 한 권을 마련하여 일련번호까지 매긴 뒤 바로 시를 썼다. 며칠 지나지 않아
현아를 향한 '나의 마음'이 담긴 시들로 채워진 시집이 됨.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에 해당함.
 공책 한 권이 아주 감동스러운 연애시로 가득해졌다. 다시 읽어 봐도 구구절절이
 명시였다. 특히 현아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그린 시는 몇 번을 다시 들여다보
 15 아도 그럴싸했다.
제법 훌륭하다.

「소녀의 눈은

맑은 이슬로만 채워진 호수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면 호수가 반짝입니다
 금빛으로 은빛으로
 20 빛나는 호수면
 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습니다」

「: '내가 현아의 '맑고 큰 눈을 바라볼라치면 마치 커다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곧 그 눈 속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라는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임.

● 현아를 향한 '나의 마음'과 시

현아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열병을 앓으며 그 마음을 현아에게 전달하고자 함.



연애시

현아에게서 느끼는 연애 감정을 시로 표현함.

● 끼적이다 글씨나 그림 따위를 아무렇게나 쓰거나 그리다.



시가 공책의 마지막 장까지 채워진 날, 「나는 하루 내내 방구석에 처박혀 공책 표지를 내 나뭇대로 멋지게 꾸미고 공책의 속지 여백에 간단한 그림도 그려 넣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한 권뿐인 수제품 시집을 만든 것이다. 그런 뒤 현아에게 주기 위하여 자취방을 나섰다.

▶ 현아에 대한 마음을 담은 시집을 완성함.

● ‘눈’과 ‘눈 위 발자국’의 기능

눈	시집 완성을 축하해 주기라도 하듯이 내림. → 시집 완성의 기쁨이 입
눈 위 발자국	친구와 현아의 발자국이 아닌지 내가 불안하게 되는 원인이 됨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었다. 마치 시집 완성을 축하해 주기라도 하듯이 소담스

현아에게 줄 시집이 완성된 기쁨을 눈 내리는 상황에 이입함.

러운 눈이 펄펄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시집을 품속에 넣고 겹옷을 단단히 여며 눈에 맞지 않도록 했다. 「현아네 집까지 가는 동안 내 발걸음은 공중에 붕붕 뜨는

현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표현된 시집에 대한 애정

「」: 현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시집을 전하려는 설렘과 기대

것 같았다. 뺨에 와 닿는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머리에 쌓이는 눈이 거 추장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아 일부러 털어 낼 필요도 없었다.

물건 따위가 크거나 무겁거나 하여 다루기가 거북하고 주체스럽게

▶ 완성된 시집을 현아에게 주러 가는 설렘

현아네 집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다. 눈 위에 발자국 넷이 찍혀 있었다. 남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

자 신발과 여자 신발 한 쌍이었다. 눈은 발자국 위에도 쏟아져 내렸지만 발자국은

눈 위의 발자국이 친구와 현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발자국은 현아네 집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질투심

‘혹시 둘이서 눈맞이하다 들어간 게 아닐까?’

친구랑 현아 둘이서 눈이 내리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간 것만 같았다. 가슴이 마

구 뛰며 방망이질을 해 댔다. 「순간, 얼른 뛰어가 아직 두 사람이 마당에 있는지 여

「」: 현아와 친구가 놀다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사실이 될까 봐 불안한 마음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

편지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런가 하면 둘이서 함께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을 것만 같아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의

‘나’의 내적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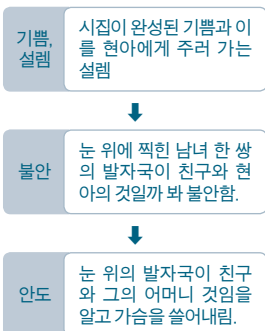
갈피를 못 잡으면서도 내 발걸음은 어느새 현아네 집 앞에까지 이어졌다. 나는 두

눈 위에 난 발자국이 친구와 현아의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

눈 꼭 감고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 눈 위 발자국으로 인한 불안감

● ‘나’의 심리 변화



“어?”

처마 밑 섬돌 위에서 눈을 털고 있는 이는 친구와 아주머니 한 분이였다.

집채의 앞뒤에 오르내릴 수 있게 놓은 돌층계

발자국의 주인

“아!”

눈에 찍힌 여자 신발 자국이 현아가 아니라 친구 어머니의 것임을 알게 된 후에 안도함.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아가 아닌 것에 그때까지의 불안이 가시고 마음이 놓인 것이다.

친구가 아주머니를 소개했다.

“우리 어머니셔. 내일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시골집에서 지금 오셨어. 하필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오시느라…….”

나는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내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때 최대한 갖출 수

눈 위의 여자 신발 자국이 현아가 아니라 친구 어머니의 것이어서 기쁜 마음을 인사로 표현함.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말이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인

안도와 기쁨의 웃음

발자국을 현아의 것으로 추측하고 질투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 섬돌 집채의 앞뒤에 오르내릴 수 있게 놓은 돌층계.

사를 하고 나자 친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좋은 친구인갑네. 인사성 밝은 것 봐. 이참에 대학은 어디로 가는 것이
여?”

5 다 좋았는데 대학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나에게 대학 같은 건 **안중에 없어**
관심이나 의식의 범위 내
서였다. 친구 어머니가 눈을 탈탈 털고 친구 방으로 들어가자 친구가 현아 방 쪽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한 뒤 나를 슬쩍 훑어보았다. ▶ 눈 위 발자국의 주인을 확인하고 안도함.

“현아는 집에 없는가 봐.”

10 내가 누구를 보러 왔는지 다 안다는 투였다. 나는 내 마음을 친구한테 들킨 것만
같아 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든 저러든 일단 현아가 집에 없다는 게 무척 다행
현아를 좋아하는 마음을 친구에게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움.
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날 친구랑 현아가 한집에 같이 있으면 안 될
현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시집을 현아에게 전해 주는 날이자, 그것을 축복하기 위해 눈이 내리는 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현아 없어도 돼. 그 대신 이것 좀 전해 주라…….”

▶ 뒤에 이어지는 사건으로 볼 때, 현아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나'에 대한 당혹감과, 이 시집을 현아에게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음.

15 내가 품에서 수제품 시집을 꺼내 친구 앞으로 내밀자 친구는 **그걸 받아 물끄러**
친구도 현아를 좋아하고 있어 '나'의 부탁에 당혹해하고 있음이 암시됨.
미 내려다보았다. 나는 친구가 그 시집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서둘러 현아
친구가 '나'의 부탁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음이 암시됨.

15 집을 뛰쳐나왔다. 괜히 친구에게 속을 보인 것 같아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었다.
'나'가 서둘러 나온 이유 ▶ 시집을 현아에게 전달해 줄 것을 친구에게 부탁함.
눈길을 되짚어 나오며 보니 현아 집으로 이어진 발자국 위에 눈이 제법 두텁게
덮여 있었다. 발자국을 볼 때마다 웃음이 픽픽 새어 나왔다. 한순간이나마 여자 신
눈이 덮인 발자국을 보고 웃음이 나온 이유
발 발자국을 현아 것으로 생각한 게 우스워서였다.

“오빠!”

20 쏟아지는 눈을 피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혼자서 실없는 웃음을 지으며 골목길
을 빠져나오는데 현아가 나타난 것이다.

“어? 현아, 어디, 갔다, 와?”

임표를 활용하여 뜻밖에 현아를 만난 '나'의 당황스런 심정을 드러냄.

나는 뜻밖에 현아를 만나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현아는 온통
'나'의 당황스런 심정이 행동을 통해 드러남.

25 「**눈을 뒤집어쓴 채 두 손을 모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반갑게 달려들 때처럼 손을**
활짝 펼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 현아의 스스럼없고 씩씩한 성격을 알 수 있음.

마음이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조금 흥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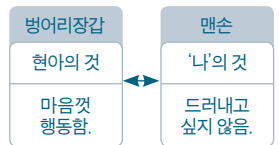
“오빠, 눈사람 만들래?”

30 현아는 병어리장갑을 끼고 있었다. 나는 바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꼭 찌른 채 멍
하니 서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현아랑 눈사람을 만들고 싶
자거나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을 때
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는 먼저 현아가 내 시집을 받아서 읽어 봤
눈사람 만들기를 거절한 이유 ①
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아니, 어쩌면 장갑을 끼지 않은 내 맨손을 드러내고 싶지
눈사람 만들기를 거절한 이유 ②

● 시집에 대한 '나'와 '친구'의 태도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를 통해 현아에게 시집을 전달하려고 함. 현아에게 빨리 전달되어 현아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 바람.
친구	'나'의 부탁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도 현아를 좋아하고 있어 어쩌해야 할 바를 몰라 시집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음.

● '병어리장갑'과 '맨손'에 담긴 의미



도시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현아네 집과는 대조적으로 '나'는 '없는 촌살림'에서 도시로 유학 온 가난한 자취생임을 '병어리장갑'과 '맨손'의 대조를 통해 드러냄.

● **안중** 관심이나 의식의 범위 내.

● **들뜨다** 마음이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조금 흥분되다.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했다.

“응, 나도, 그리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가야 돼…….”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는 더듬거렸다. 갑자기 내가 바보가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싶었다. 현아의 말이 거짓임을 드러냄. 현아랑 자연스럽게 어울려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한테 시집을 맡겼으니 현아가 시집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됨. 받아 읽어 보라는 말도 하면 될 텐데 끝내 하지 못하고 말했다.

현아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지는 살피볼 겨를도 없이 나는 마구 눈 속을 뛰었다. 뒤통수가 근질근질했다. 현아가 시집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 바람.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다.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현아네 집에 가 보기가 망설여졌다. 혹시라도 현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 봐 걱정되어 망설임. 학교는 이미 겨울 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도 없었다. 친구로부터 현아의 반응을 전해들을 기회조차 없었음.

몇 번씩이나 현아네 집 골목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다. 오다가다 우연이라도 현아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아네 집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 모른다. 실연의 상처로 인해, 시적 소재가 사라짐.

전개 현아를 좋아하게 된 '나'가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집을 만들어 현아에게 이를 전해 줄 것을 친구에게 부탁하였는데, 시집에 대해 현아의 반응이 없자 절망함. 현아의 반응 없음으로 인해 '나'는 절망함.

위기 **중략 부분 줄거리** 현아를 원망하며 깊은 절망에 빠진 '나'는 더 이상 시를 쓰지 않는다. 대학과 군대 생활을 마치고 들어간 직장에서의 메마르고 기계적인 삶은 '나'를 지치게 한다. '나'는 결국 고향을 찾아 스스로를 돌아본 후 다시 글을 쓰면서 글로써 자신이 인간적인 감정이나 창의성이 없이 맹목적·수동적으로 하는 또는 그런 것 **위안받고 있음을 느낀다.** 이후 소설가가 된 '나'는 지난 세월 속의 자신은 잊고 새로 자신의 적성과 직업, 삶 등에 대해 성찰함 태어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던 차, 현아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문학이 '나'에게 주는 효용 적성에 맞지 않는 진학과 직업 때문에 괴로웠던 시간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삶 글을 쓰는 작가로서의 새로운 삶

위기 '나'는 첫사랑의 상처로 방황하다가 고향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글을 쓰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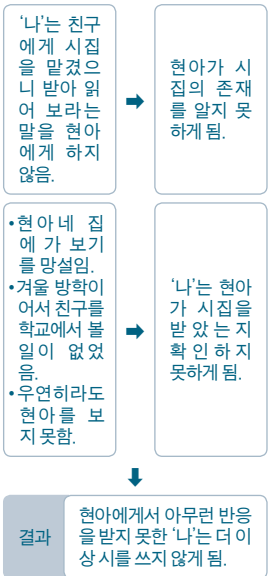
절정 기억의 저편을 한참 헤매고 있는데 현아가 나를 잡아끌었다.

현아가 '나'에게 건넨 말로 인해 '나'는 과거 회상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옴. (역순행적 구성)
“앉아서 차 한잔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청소를 마친 찻집 주인이 건성으로 신문을 뒤적이면서 계속 우리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 둘은 한참 동안 침 진지한 자세나 성의 없이 대충 하는 태도 목을 지켰다. 내 앞에는 다시 여고생 소녀 현아가 앉아 있었다. 눈앞의 현아가 사 어떤 화제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함 현아가 여고생일 때 헤어졌으므로 '나'의 기억 속 현아는 항상 여고생의 모습임.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돌아옴. **십 줄에 가까운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나는 침목을 건디기 힘들어 공책을 뒤적거렸다. 작품 한 편마다 편마다 여고생 소녀 현아가 그려져 있는데, 가공하지 아니한 것 쑥스러울 정도로 그때 나의 감정이 날것 그대로 한껏 드러나 있었다. 한참 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현아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현아와 재회했을 때 '나'가 현아의 눈이 '촉촉하게 젖은 느낌'을 받은 이유 젖은 눈빛으로 현아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나'가 알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



“그동안 나 미워했지요?”

나는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현아를 미워했을까?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잊으려고 한 게 꼭 미움 탓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현아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또는 그런 것

5 “많이 미웠을 거예요…….”

역시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계속 공책을 뒤적거렸다. 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집을 가지고 현아네 집에 갔다 돌아올 때 만났던, 눈을 뒤집어쓰고 귀가하던 현아 모습만이 공책의 장마다 어른거렸다.

고등학교 시절 현아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장면이 떠오름.

▶ 자신이 미웠을 것이라고 말하는 현아

현아가 더듬거렸다.

10 “음, 남편이, 죽었어요.”

“어!”

나는 외마디 소리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현아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현아가 다시 더듬거렸다.

15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고인(故人)이 생전에 사용하다 남긴 물건

나는 아직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이 시집이 나한테 전해진 거예요.”

현아의 남편이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음을 알 수 있음.

“뭐라고?”

시집에 대한 현아의 반응이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된 놀람

남편이 죽고 나서라니? 그렇다면 그 친구 녀석이 현아 남편? 아, 그 녀석도 현아

'나'가 수제품 시집을 현아에게 대신 전해 달라고 했을 때 친구가 시집을 물끄러미 바라본 이유

20 를 좋아했구나. 순간적으로 그때 상황이 재빠르게 재구성되었다. 내 수제품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 안 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시집을 왜 내게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 없애 버리지도 않았을까?

“미안해요.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이제야 돌려 드리게 되어서. 그때 받았으면 바로 돌려 드렸을 텐데……. 시집 속에 말들이 스무 해 동안이나 갇혀 있

그때도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

시집 속의 시들에 담긴 표현이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음.

25 느라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 드리려고……. 오빠가 글 쓰는 작가가 된 건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신문에서 오빠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시집을 꼭 돌려 드리려고…….”

현아 입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자연스레 두 번씩이나 나왔다. 그 말을 듣자 마

현아의 '오빠' 소리에 고등학교 시절의 감정이 떠올라 긴장함.

른침이 목으로 넘어갔다. **절정** ‘나’가 만든 시집이 현아에게 전해지지 ▶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이 밝혀짐. 않은 이유가 밝혀짐.

30 **결말** 아, 그런데, 나는 무엇이, 아니 누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 현아가 ‘나’에게 자신이 미웠을 것 이라 한 이유

‘나’에 대한 현아의 추측

- 자신이 ‘나’의 마음이 담긴 시를 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나’가 자신의 무반응에 상처받았을 것이다.
- 결국 ‘나’는 자신을 많이 미워했을 것이다.

현아가 ‘나’에게 자신이 미웠을 것이라고 말한 까닭을 짐작해 보자.

어시 당 현아는 친구를 통해 자신이 시집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가 자신에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해 상처받고 절망하였을 지난 시간을 헤아려 자신이 미웠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

시집의 내용	현아를 향한 ‘나’의 마음이 담겨 있음.
친구의 마음	현아를 좋아하고 있었음.



친구는 현아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담긴 시집을 현아에게 차마 전해 줄 수 없었음.

●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의 의미

• 수제품 시집에 담긴 ‘나’의 시들
• 현아를 향한 ‘나’의 사랑의 감정
• 20년 동안의 ‘나’의 방향과 절망, 회의

20년 전에 현아에게 보낸 시집이지만 현아가 그동안 그 시집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결국 시집의 말들은 누구에게도 읽히지 못한 채 20년 동안 갇혀 있었음.

• **유품** 고인(故人)이 생전에 사용하다 남긴 물건.

‘나’가 시집을 돌려받지 않은 까닭을 파악해 보자.

어시 답 시집에 담긴 시는 ‘나’가 쓴 것이지만 그것은 온전히 현아를 위해 쓴, 현아한테만 어울리는 시이므로 ‘나’는 자신 역시 시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집을 돌려받지 않은 것이다.

나는 공책을 다시 현아 쪽으로 슬며시 내밀었다.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처음으로 이는 어지럼증을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다.

“이건 현아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야. 여기 들어 있는 시는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쓴 것이거든. ^{‘나’가 시집을 돌려받지 않은 이유. 시집의 주인은 오로지 현아밖에 없음.} 현아 남편이 된 그 친구도 ^{‘나’의 수제품 시집에 담긴 시는 오로지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쓴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다 시 돌려주지도 못하고 없애 버리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 시를 쓴 나도 주인이 아니야. 그럼 이만…….”

밖에는 여전히 눈이 퍼붓고 있었다. 눈길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발걸음을 땔 때마다 ‘오빠’라는 소리가 밝히는 것만 같았다. ^{‘나’를 실감케 ‘오빠’라고 부르던 현아를 좋아했던, ‘나’의 첫사랑의 추억이 아련하게 느껴짐.} ▶ ‘나’가 현아에게서 시집을 돌려받지 않음.

결말 ‘나’는 그 시집은 현아한테 어울리게 쓴 것이므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남. - 『함께 여는 국어 교육』

|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장 소설	성격	회고적, 성찰적
주제	청소년의 순수한 사랑과 정신적 성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과거-현재’의 구성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함. • 주인공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함. • 성장기 무렵 겪는 첫사랑과 성장의 통과 의례를 다룬 성장 소설임. 		

박상률(1958~)

소설가·시인. 시, 소설 외에도 동화, 희곡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문학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품집으로 『봄바람』, 『나는 아름답다』 등이 있다.



역량을 기르는 학습 활동

형성 평가
소단원 (2)
형성 평가

모의 평가
소단원 (2)
모의 평가 1~3회

서술형 평가
소단원 (2)
서술형 평가

이해 활동

1 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해 보자.

(1) 다음은 이 작품의 주요 장면을 나타낸 그림들이다.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해 보자.

지도 방법 이 활동은 작품의 주요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나아가 제목의 의미를 말해봄으로써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 탐색해 보는 활동이다. 글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줄거리와 주요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려 보면서 일이 일어난 순서를 정리하고, 이 작품의 제목을 전체의 내용과 연관 지어 파악해 보도록 한다.



예시 답



(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바를 말해 보자.

예시 답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은 고등학생 시절 '나'가 첫사랑인 현아를 생각하며 쓴 시를 엮어 만든 책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한 권밖에 없다는 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가 "이건 현아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야. 여기 들어 있는 시는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쓴 것이거든."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맑고 순수한 첫사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목표 활동

2

이 작품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해 보자.

지도 방법 이 활동은 다른 사람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작품에 반영된 여러 요소들을 살피면서 그 의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 보는 활동이다.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사 등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이에 답해 보는 것은 주체적인 작품 해석을 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 봄으로써 문학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도록 한다.

(1) 가장 인상적인 구절을 찾아 적고 그 까닭을 말해 보자.

예시 답 현아가 '나'를 만나서 "스무 해 동안, 감혀 있던, 말들이예요……"라고 말한 구절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가 마음에 잘 와 닿았고, 전달되지 못한 '나'의 마음을 말들이 감혀 있었다고 표현한 데서 안타까움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2) 등장인물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고,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적어 보자.

<p>왜 시집을 읽어도 안고 '나'에게 돌려주지도 않았나요?</p>	→	<p>그때는 현아에게 전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다가, 돌려줄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현아와 친구에게 참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p>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나'의 친구</p>
<p>왜 스무 해 만에 연락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첫사랑의 기억은 잊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p>	→	<p>남편의 유품에서 시집을 발견하고 많이 놀랐어요. 망설이다가 당시 상심하였을 오빠에게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말하고, 시집을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p>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현아</p>
<p>이십 년 만에 찾아온 첫사랑인데, 왜 그 시집을 받지 않고 돌려주었나요?</p>	→	<p>그 시집은 제 추억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의 시는 온전히 현아의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돌려준 거예요.</p>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나'</p>

(3) (2)에서 쓴 질문과 대답을 친구와 바꾸어 읽어 보고, 그와 관련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나는 '나'의 친구가 시집을 버리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간직했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

나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집을 '나'에게 돌려주거나 현아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 사실을 감추는 것은 비겁한 일이잖아.

예시 답

- 나는 어렵게 연락해 온 현아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가 시집을 받아 주고 위안의 말도 해 주었다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
- 나는 '나'가 그러지 못한 마음도 이해해. 현아에게 시집을 돌려받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3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 활동의 의의를 생각해 보자.

지도 방법 이 활동은 작품 속에서 문학이 주인공 '나'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문학 활동의 의의를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문학 작품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데, 이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보도록 한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문학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본다.

- (1) 다음은 '중략 부분'에서 '나'가 다시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밝힌 부분이다. 이를 참고하여 '나'에게 문학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말해 보자.

고향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내 살아온 지난날들을 더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책에다 뭔가를 끼적끼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단한 내용을 담은 글은 아니었으나 글을 쓰다 보니 내 마음이 가라앉고 위안이 되었다.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쓰자며,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쓰자며 호기를 부리던 일이 떠오른 것이다. 이어 현아로부터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서 줄 수 있는 시를 쓰라는 주문을 받았던 것도 떠올랐다. 어쩌면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영혼을 쓰다듬는 글과 내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서 주기 위해 글을 끼적끼고 있는지도 몰랐다. 비록 시는 아니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를 위한 글을…….

예시 답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영혼을 쓰다듬는 글과 내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서 주기 위해 글을 끼적끼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구절을 통해 문학이 메마른 현실에 지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지난 삶 속에서 생긴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문학 작품을 읽거나 창작한 경험을 떠올려 보고, 내가 경험한 문학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소개해 보자.

예시 답 학급 문집에 글을 실기 위해 '가족'이란 주제로 시를 쓴 적이 있다. 시를 쓰기 위해 부모님과과의 추억을

떠올리던 중 내가 부모님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

시를 썼는데, 문집에서 내 시를 읽은 친구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해 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 (3) 문학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며 작품 속 인물에 공감하는 한편 자신의 감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문학 작품을 매개로 다른 사람과 소통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도 한다. 이처럼 문학 활동을 하는 것은 내면을 가다듬고 자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한다.



'한 권 읽기'는 스스로 선택한 책을 긴 호흡으로 읽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통합적인 독서 활동이다. 주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해 보자.

4

모둠을 구성하고 모듬이 한 학기 동안 읽을 문학책을 선정해 보자.

(1) 도서관, 서점,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읽고 싶은 책을 찾아보고, 모듬 구성원끼리 각자 고른 책의 정보를 나누어 보자.

예시 답

• 모듬 이름: 멜랑콜리 문학

도움

책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 도서관, 공공 도서관, 서점, 관련 비영리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권장 도서 목록을 활용할 수 있다. 시집이나 소설책, 수필집 등 다양한 종류의 문학책을 살피도록 한다.

지도 방법

이 활동은 '한 권 읽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모듬 구성원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읽을 문학책을 선정하는 활동이다.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등 다양한 종류의 문학책을 찾아보고 모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책을 골라 보도록 한다.

고른 사람	책 제목	작가	출판사
배수지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자음과모음
이정민	편의점 가는 기분	박영란	창비

(2) 모듬에서 어떤 책을 함께 읽으면 좋을지 상의하여 책 한 권을 선정해 보자.

예시 답

선정한 책

• 책 제목: 편의점 가는 기분 • 작가: 박영란

선정한 까닭

모듬 친구들 모두 평소 편의점을 편하게 자주 이용하는데, 「편의점 가는 기분」이라는 책의 제목을 보고 편의점에 갈 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분이 있는 것일까 모두 궁금해했다. 또 책 따지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특별한 편의점'이란 문구가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주는지 알고 싶어 이 책을 선정하였다.

독서 기간

2000 년 9 월 30 일 ~ 2000 년 11 월 10 일



5

선정한 책을 꾸준히 읽으며 독서 일지를 써 보자.

(40분 독서/10분 일지 쓰기)

도움

책을 읽을 때마다 독서 일지를 쓴다. 독서 일지 활동지는 부록 367~370쪽에 있다.

지도 방법

이 활동은 모둠에서 선정한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는 활동이다.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정독하고, 읽은 분량에 대해 독서 일지를 작성하면서 독서 활동을 스스로 정리해 본다.

20 . . .

책 제목	작가	읽은 쪽
편의점 가는 기분	박영란	7 ~ 17 쪽

오늘 읽은 내용

'나'는 재개발이 예정된 오래된 마을에서 외할아버지의 마트 일을 도우며 살고 있다. 그런 '나'에게 마음을 나눌 친구는 한동네에 사는 장애인 소녀 수지뿐이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마트를 접고 새로 생긴 원룸가에 24시 편의점을 열기로 한 전날, 수지가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나'는 수지가 어디로 갔을지 곧 짐작했으나, 막상 팔 개월이 지나도록 수지를 찾아가지 못한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 수지는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일까?
- '나'는 왜 수지를 찾아가지 않은 것일까?

새롭게 품은 생각

장마철이면 실지렁이가 기어오르는 수지네 방을 처음 본 날 혼자 울었다는 '나'의 말이 책을 덮은 후에도 계속 마음에 남았다. 이 세상에 내가 겪어 보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서 나와 다른 삶의 모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내용

수지와 '나'를 비롯한 구지구의 사람들은 단지 소설 속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 주는 사람이 되자고 말하고 싶다.



6 다음 활동을 하며 책의 내용을 되새겨 보자. 🍷

지도 방법 이 활동은 책을 읽고 느낀 감상을 짧은 평으로 작성해 보면서 작품의 내용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활동이다. 작품의 내용이나 등장인물, 작가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적어 보고, 모둠원들이 협력하여 답변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주제적 해석과 문학적 내면화를 경험해 보도록 한다.

(1) 책을 읽은 감상을 짧은 평으로 써 보자.

평점 ★★★★★

예시 답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한밤중에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함을 느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나도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활동지 답변 마련하기

(2) 모둠 구성원이 독서 일지에 적은 '궁금한 점' 중에서 다섯 개를 골라 책의 순서에 맞추어 재배치하고, 함께 의논하여 답변을 마련해 보자.

예시 답	
<p>질문 1 (질문자: 유호정)</p>	<p>질문: 수지는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일까?</p> <p>답변: '나'에게 말을 하더라도 해결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p>
<p>질문 2 (질문자: 이정민)</p>	<p>질문: '수지'나 '고마 수지'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는 무엇일까?</p> <p>답변: 인생의 한계나 상처를 대범하게 바라보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하고자 한 것 같다.</p>
<p>질문 3 (질문자: 고재형)</p>	<p>질문: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평등의 시차'를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p> <p>답변: 매 순간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캔 커피 한잔 마시는 것이 사치인 사람들은 비싼 커피숍에서 한가로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불평등의 시차를 생각할 것이다.</p>
<p>질문 4 (질문자: 배수지)</p>	<p>질문: 무슨 일을 하건 인간의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일로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일까?</p> <p>답변: 일상적인 모습이 쌓여 우리 집, 우리나라, 전 세계의 흐름을 만들어 가니 차근차근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인 것 같다.</p>
<p>질문 5 (질문자: 김리원)</p>	<p>질문: 다른 방식으로 살려야 하는 사람들의 결정이 정말 유의미한 것일까?</p> <p>답변: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들의 결정이 세상을 바꾸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p>



적용 활동

7 모둠에서 함께 읽은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자.

도움

시집을 읽었다면 모둠에서 대표 시로 뽑은 작품의 내용을, 소설책을 읽었다면 가장 극적인 한 장면이나 줄거리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그 외에 책을 소개하는 광고 영상이나 익살스럽게 작품의 내용을 표현하는 패러디 영상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지도 방법 이 활동은 앞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모둠원들이 협력하여 영상을 제작해 보는 활동이다. 작품의 줄거리나 감동적인 장면 등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작품의 내용을 패러디하거나 재창작한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 모둠 구성원의 역할 나누기, 스토리보드 작성, 촬영하고 영상 편집하기, 중간 시사회 열어 수정하기의 단계를 수행하며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

(1) 모둠 구성원끼리 상의하여 영상으로 제작할 내용을 고르고 영상의 개요를 써 보자.

영상의 개요

예시 1

- 작품의 내용: '나'가 현아를 위해 시집을 만드는 내용
- 등장인물: '나', 친구, 현아
- 영상의 줄거리: '나'는 친구의 소개로 현아를 만난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 마른 가슴을 축축하게 적셔 줄 수 있는 시를 써 봐!"라는 현아의 말만 계속해서 떠올린다. '나'는 누구보다 현아의 마음을 적실 시를 쓰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날부터 '나'는 단 한 사람의 독자를 위해 시를 쓰고 또 쓴다. 마침내 한 권으로 묵일 정도로 시가 모이자 '나'는 정성을 다해 표지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 시집을 완성한 후, 현아에게 시집을 주기 위해 집을 나선다.

예시 2

- 작품의 내용: 심야에 편의점을 지키는 '나'와, 편의점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
- 등장인물: '나', 흑, 꼬마 소녀, 소녀의 엄마, 캣맘
- 영상의 목적: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책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함.
- 영상의 줄거리: 심야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나'에게 한 사람씩 찾아오면서 사건이 벌어진다. 새벽 12시. 정체 모를 청년 혹은 불쑥 나타나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서 '흑'하고 사라진다. 새벽 2시. 꼬마 소녀는 아픈 엄마를 데리고 들어와 편의점에서 밤을 지새운다. 한편 캣맘은 매일 밤 구시기를 돌며 고양이들에게 밥을 준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한밤의 편의점을 찾아오는 것일까?

(2) 모둠 구성원의 역할을 나누어 보자.

예시 답






역할		이름
감독		배수지
스토리보드 담당		유호정
촬영 담당		김리원
편집 담당		고재형
배역	'나'	이정민
	흑	고재형
	꼬마 소녀	유호정
	소녀의 엄마	배수지

도움

스토리보드 활동지는 부록 371쪽에 제시되어 있다.

(3) 다음 예)를 참고하여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보자.

스토리보드 예)

장면	요소	내용
<p>1</p> 	<p>장면 설명</p> <p>소리</p> <p>자막</p>	<p>친구의 소개로 현아와 악수하는 ‘나’. “오빠, 시 쓴다면서? 야, 멋지다!”라는 현아의 말에 현아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마구 흔들린다.</p> <p>쿵쿵쿵쿵 심장 박동 소리</p> <p>첫 만남</p>
<p>2</p> 	<p>장면 설명</p> <p>소리</p> <p>자막</p>	<p>밤새 뒤척이는 ‘나’. 현아의 얼굴과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 줄 수 있는 시를 써 봐!”라는 말이 ‘나’의 머릿속에서 맴돈다.</p> <p>현아의 목소리 효과음, 서정적인 음악</p> <p>설렘</p>
<p>3</p> 	<p>장면 설명</p> <p>소리</p> <p>자막</p>	<p>‘나’는 현아의 마음을 적실 시를 쓰겠다는 다짐을 하며 열정적으로 시를 써 내려간다.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하여 시를 쓰는 ‘나’.</p> <p>‘나’의 목소리 효과음, 사각사각 연필 소리</p> <p>쓰고 또 쓰고!</p>
<p>4</p> 	<p>장면 설명</p> <p>소리</p> <p>자막</p>	<p>‘나’는 정성스럽게 표지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 넣으며 속표지에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라고 쓴다.</p> <p>밝고 경쾌한 음악</p> <p>완성, 그리고…….</p>
<p>5</p> 	<p>장면 설명</p> <p>소리</p> <p>자막</p>	<p>‘나’는 시집을 품에 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선다.</p> <p>설레는 음악</p> <p>이제, 그녀를 만나러…….</p>



활동지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우리
모듬의
스토리
보드

예시 단

장면

요소

내용



1

장면 설명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있는 '나'의 모습. 밖을 쳐다보기도 하고 매장의 물건을 정리하기도 함.

소리 밤이므로 조용하나,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자막 깊은 밤, 편의점에 가본 적이 있나요?



2

장면 설명 혹은 들어오는 남자에게 '나'가 인사를 함. 남자가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들고옴.

소리 딸그랑 벨 소리, 빠르게 들어오는 '혹' 소리 강조

자막 수상한 남자 1, 새벽 12시. 무슨 일을 하기에 야밤에 라면을 먹으러 편의점에 오는 걸까?



3

장면 설명 새벽 2시. 딸그랑 문이 열리고 꼬마 소녀가 들어옴. 소녀가 "조금만 있다 가도 되지?"라고 묻고, 뒤이어 소녀의 엄마가 따라 들어옴.

소리 딸그랑 벨 소리

자막 황당 꼬마 1, 그리고 이상한 엄마 1, 새벽 2시인데 집은 어찌고 여기 있다 가겠다는 거야?



4

장면 설명 오렌지색 패딩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눌러쓴 아줌마가 들어옴. 아줌마가 따뜻한 캔 커피를 마시며 "또 불이 날까 걱정이네."라고 말을 건넨.

소리 딸그랑 벨 소리

자막 캣맘 1. 이 추운 날 한밤중에 고양이에게 밥을 주러 다니는 아줌마. 대단하다, 정말. 그런데 불?



5

장면 설명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한밤중 편의점에 인물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묘사함. 담담함, 놀람, 당황함, 의아함 등의 다양한 표정이 드러남.

소리 따뜻하고 가벼운 분위기의 음악

자막 한밤중 편의점, 바쁘다 바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4)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각 장면을 촬영하고, 어울리는 소리와 자막을 삽입하여 영상을 편집해 보자.

예시 답 생략

(5) 중간 시사회를 열어 영상의 수정 방향을 협의해 보자.

예시 답 • 편의점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 보임. 밤이지만 조금 더 따뜻해 보이도록 화면 색감을 조정하고 배경 음악을 교체함.
 •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한 분위기로만 가지 말고, 보는 이가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중간중간 깜짝 놀라게 하는 요소를 추가함.

8 여러 모둠에서 만든 영상들을 함께 감상하고 다음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느낀 바를 이야기해 보자.

지도 방법 이 활동은 모둠에서 만든 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평가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소통해 보는 활동이다. 평가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잘한 점, 아쉬운 점, 보완할 점을 적되, 근거 없는 비판이나 공격은 지양하고, 함께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예시 답 • 느낀 바: 문학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덧붙여 드러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구들과 작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영상으로 표현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원활하게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법도 터득할 수 있었다.

모둠별 평가지

심사 기준

- 영상의 내용이 잘 이해되는가?
- 영상과 소리, 자막이 잘 어울리는가?
- 화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 하나의 작품으로서 완결성이 있는가?
- 모둠 구성원의 협동과 노력이 느껴지는가?

모둠 이름	작품 이름	전체 평가(잘한 점, 아쉬운 점, 보완할 점)	평점
문학 청년	모든 순간의 슬픔	어려운 시의 행간을 잘 풀어서 영상으로 표현하여 시의 내용이 잘 와 닿았다.	★★★★★
			★★★★★
			★★★★★
			★★★★★
			★★★★★



되짚어
보기

소단원 학습을 하며 새로 안 내용이나 더 궁금한 점을 써 보며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자.

.....

.....

.....

.....

핵심
정리하기

1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감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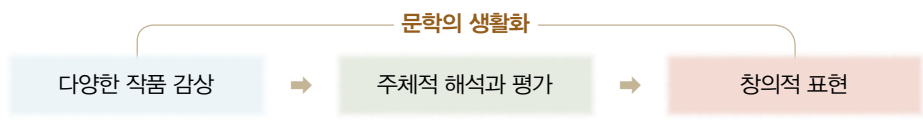
청소년기의 순수했던 사랑과 아픔, 정신적 성장을 그린 소설이다. 주인공 ‘나’가 성장하며 겪는 통과 의례와 문학으로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함께 다루면서 문학 활동과 문학적 소통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나’의 문학 활동

- 영혼을 쓰다듬고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 주는 시를 쓰고자 함.
- 쓰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위안이 되는 글을 써 내려감.

2 문학 작품의 주제적 해석과 문학의 생활화

문학 작품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품을 읽고 자신의 감상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사람의 평가를 따르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다양한 사례와 비교하면서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제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또한 해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작품을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을 생활화하는 자세는 다양한 의견이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자연스러운 소통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함께하는

창의·융합 활동

사회와 소통하는 국어

사람 도서관 운영하기

각 분야의 전문가가 '사람책'이 되어 독자와 직접 만나는 '사람 도서관'의 의미를 알고, 직접 도서관 행사를 기획해 보는 활동이다. 모듈별로 활동을 하며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즐거움을 느껴 보자.



동영상 자료

사람 도서관 뉴스

1

다음 뉴스를 보고 '사람 도서관'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도 방법

'사람 도서관'의 개념과 역할을 알리는 뉴스 영상을 보고, 뉴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열람하고 싶은 '사람책'을 떠올려 보고 그로부터 어떤 것을 알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 또한 스스로가 '사람책'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책 대신 사람 빌려주는 '사람 도서관'

진행자: '도서관' 하면 서고에 가득한 종이 책이나 전자책을 떠올리실 텐데요. 책 대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이른바 '사람책'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 도서관'이 도서관의 새로운 대출 문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있는 한 중학생. 진로에 도움이 될 특별한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학생이 고른 책은 종이책이 아닌 '사람책'. 학생은 종이책 대신 정보 기술 업계 종사자를 직접 만나 진로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중학생: 여러 기업에서 일하셨던 분에게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기자: '사람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독자와 일대일로 만나 새로운 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문화, 예술, 정보 기술 등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살림 비법이나 스마트폰 사용법 같은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 도서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이곳에서만 상시 대출이 한 해 300건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 **도서관장:** 「책에는 없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접할 수 있고, 방문 전까지 겪은 것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책의 장점②」

기자: 딱딱하고 틀에 박힌 활자에서 벗어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직접 전달해 주는 '사람책'이 독서 문화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비에스(EBS), 2016년 8월 16일 뉴스

(1) 이 뉴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책'의 장점을 써 보자.

에시답 • 관련 전문가를 직접 만나 책에는 없는 구체적인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살림 비법이나 스마트폰 사용법과 같은 생활 정보도 사람책의 내용이 되므로 누구나 사람책이 되어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다.

(2) 나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하여 '사람 도서관'에서 열람하고 싶은 '사람책'을 떠올려 보고, 다음 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도움
 내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사람 도서관'이 있다면 실제로 방문하여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람책'을 열람해 보도록 한다.

사람책 열람 신청서

사람책 열람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오○○	접수일	20○○년 ○월 ○일
신청 사람책	분야	사진	사람책 이름	김△△
신청 글	※사람책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세 가지 이상 작성하세요. ① 인물 사진을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② 사진학과에 가면 사진 작가가 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③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사진 장비를 추천해 주세요.			
열람 시 유의 사항	• 주어진 시간 동안 대화를 충실하게 나눌 수 있도록 열람 신청 시 세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람책의 열람 시간은 총 50분이며, 30분간 사람책의 설명을 듣고 20분간 질문과 답변을 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 신청자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책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책이 스스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열람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사람 도서관'에 '사람책'으로 지원한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에시답 나는 종이접기 분야의 사람책으로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종이접기 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아이들이 종이접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2 우리 지역에 '사람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모둠별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지도 방법 책을 보관할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사람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에 '사람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간단한 운영 계획을 세워 보는 활동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람 도서관'을 조사하고, 해당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홍보 방안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사람 도서관'만의 특색 있는 광고지를 만들어 보자.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람 도서관'을 조사하고, 운영 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적어 보자.



'사람 도서관'에서는 '사람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을까?

'사람 도서관'에서는 어떤 행사나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까?



예시 답

- 구 휴먼 라이브러리: 격월로 사람책 및 독자가 합동으로 사람책을 열람 신청하는 '사람책 초대석' 행사를 실시함.
- △△시 사람 도서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람 도서관과 사람책의 활동을 안내하는 소식지를 매월 발송함.

도움

'사람 도서관'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전문가나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 중에서 '사람책'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아보도록 한다.

(2) 모둠원들과 논의하여 '사람책'의 분야를 나누고, 각 분야에서 '사람책'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아보자.

예시 답

<p>살림/요리</p> <p>예) 정우람의 어머니 김선미</p>	<p>경제/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창업가 박△△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정□□ 	<p>진로/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진로 상담 교사 이▲▲ •지역 방송 프로듀서 양☆☆
<p>미용/패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헤어 디자이너 신★★ •우리 학교 패셔니스타 김◎◎ 	<p>취미/수공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러스트레이터 최◇◇ •주부강◆◆ 	<p>건강/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경력의 환경 미화원 우■■■ •환경 단체 활동가 정▼▼

(3) 분야별 대표 ‘사람책’을 선정하고,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자.

● 보기 ●

예)	분야	살림/요리	사람책 이름	김선미
	사람책 제목	알고 나면 별것 아닌 집안일 공략법		
	대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 경력 20년, 아파트 동 대표 • 육아 잡지 『월간 △△△』에 육아 및 살림 비법 연재 • 요리 관련 블로그 5년 운영 		
	소개	살림과 육아에 서툰 초보 엄마와 아빠뿐만 아니라 살림의 달인이 되고 싶은 분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여 살림·육아·요리 고민에서 탈출하세요.		

- 예시 답**
- 분야: 미용/패션 • 사람책 이름: 신★★
 - 사람책 제목: 바쁜 아침, 10분이면 끝나는 머리 손질법
 - 대표 경력: - ☆☆ 미용 고등학교 졸업 - ◇◇ 미용실 근무 중 - 미용 관련 블로그 3년 운영
 - 소개: 바쁜 아침, 부스스한 앞머리, 어떻게 말려도 사방으로 뻗치는 옆머리, 축가라얌 머리 모양 때문에 고민인 분은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머리 손질법을 가르쳐 드려요.

(4) 우리 모듬의 ‘사람 도서관’을 홍보하는 광고지를 만들어 보자.

예)

예시 답

분야	사람책	사람책 소개	분야	사람책	사람책 소개
과학	김민서	과학의 매력	특수학	김민서	과학의 매력
	이민서	과학의 매력		이민서	과학의 매력
	김민서	과학의 매력		김민서	과학의 매력
문학	김민서	문학의 매력	예술	김민서	예술의 매력
	이민서	문학의 매력		이민서	예술의 매력
	김민서	문학의 매력		김민서	예술의 매력
역사	김민서	역사의 매력	스포츠	김민서	스포츠의 매력
	이민서	역사의 매력		이민서	스포츠의 매력
	김민서	역사의 매력		김민서	스포츠의 매력

• 행사: 2018년 10월 20일(토) 오전 10시~12시
 • 장소: OO중 1층 교내체육관 제1회실
 • 행사: 참가: 학생 10명, 교사 1명, 학부모 1명, 교사 1명

대단원 마무리



모의 평가
대단원
모의 평가 1~2회



수행 평가
대단원 수행 평가

배운 내용
확인하기



어휘 학습 자료
1단원 어휘 학습지

이 단원의 단어들로 만든 단어 구름을 활용하여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지도 방법 이 단원에서 배운 주요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설명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단어 구름에서 찾아 적으며, 독서를 통한 진로 탐색과 문학 작품의 주제적 해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다.



(1) 빈칸에 들어갈 말을 단어 구름에서 골라 써 보자.

- 자신의 **진로** (이)나 관심사에 관한 글을 찾아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하여 진로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주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에 반영된 **가치** 을/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문학을 주제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넓히고, 문학을 **생활화** 할 수 있다.
-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는 **청소년** 들에게 진정한 **꿈** 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글이다.
-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은 청소년기의 순수하고 애절한 **사랑** 의 감정을 잔잔하게 드러낸 소설이다.
- 한 권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활동을 하며 **독서** 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느낄 수 있다.

(2) 이 단원에 나온 단어 중에서 단어 구름에 더 추가하고 싶은 단어를 세 개 이상 써 보자.

예시 단 확산, 성찰, 자발적

스스로
점검하기

다음 평가표를 작성하며 학습 정도를 점검해 보자.

점검 항목	내 점수
책을 읽으며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다.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한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며 진로 경험을 확장하였다.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면서 문학을 생활화하였다.	
한 권의 책을 꾸준히 읽으며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알고, 자발적으로 책을 찾아 읽는 태도를 갖추었다.	

점수표는 여기!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0~25점	참 잘했어요.	13~19점	잘했어요.	5~12점	노력이 필요해요.
--------	---------	--------	-------	-------	-----------

내 점수는 _____ 점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더 발전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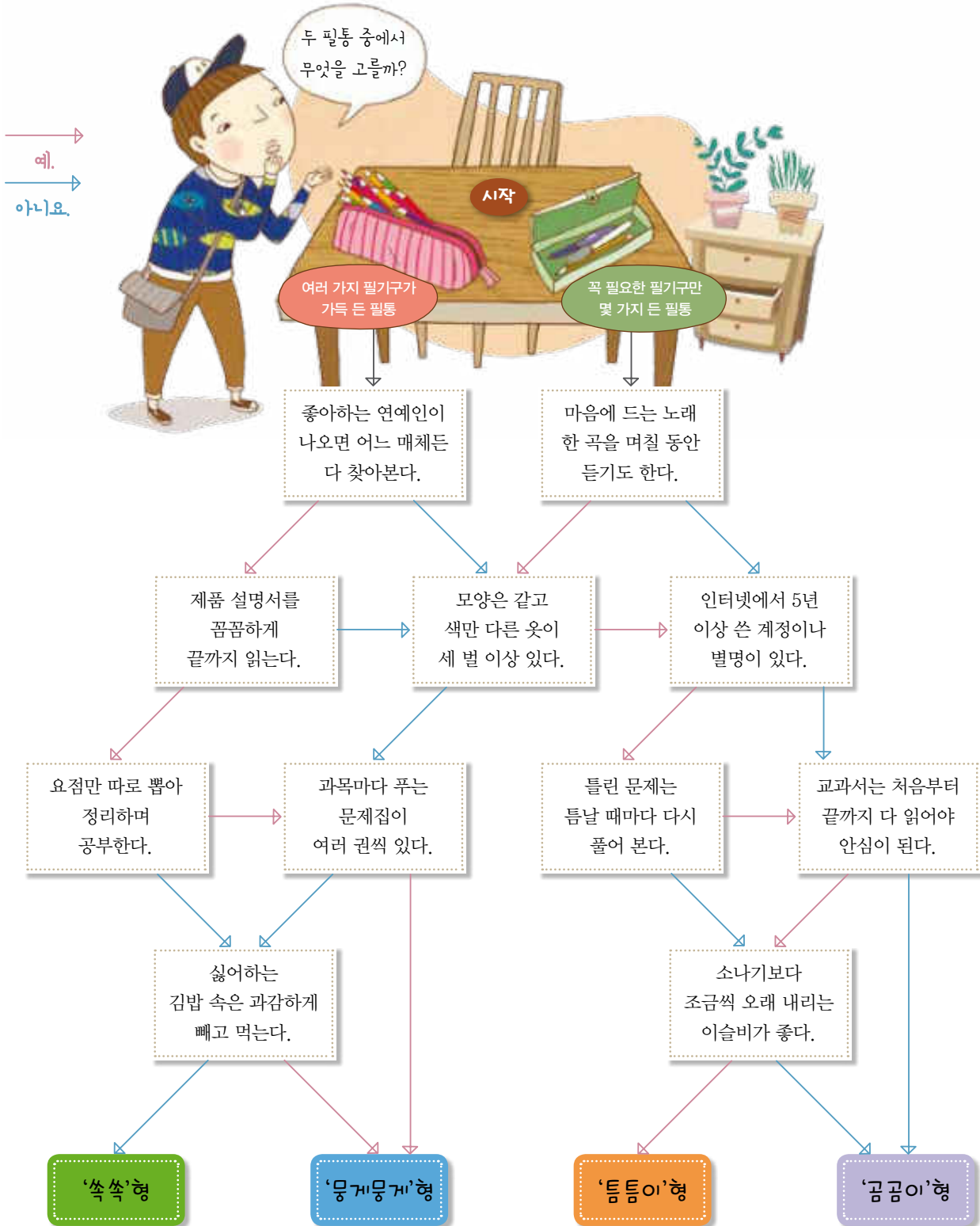
느낀 점:

.....
.....

계획: 나는 앞으로

..... 하겠다.
.....

이 단원에서는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를 탐색한 후, 관련 분야의 책을 한 권 선정하여 읽으면서 진로 경험을 확장해 보았다. 또한 소설 한 편을 주체적으로 감상하고, 문학책 한 권을 선정하여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문학 활동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를 생활화하여 세상을 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해 보자.



'쓱쓱'형

책에서 필요한 부분만 쓱쓱 뽑아 읽는 방법. 책을 빠르게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만 기억하는 방법도 여기에 포함된다.

물리학자 정재승

“요즘은 속독을 하면서 책의 필요한 부분을 기억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되도록이면 많은 책들을 뒤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들은 옆에 놓아두어요.”



✧ 주로 실용서나 교양서를 읽을 때 적합한 방법.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전체 맥락을 잘못 파악할 수도 있으니 그 점에 조심할 것!

'몽게몽게'형

몽게구름처럼 몽게몽게 피어나는 독서욕! 매일 밥을 먹듯 책을 꾸준하게 많이 읽는 방법이다. 그 결과가 쌓이면서 '독서 근육'이 늘어난다.

생물학자 최재천

“독서는 내가 모르는 분야와 씨름하면서 치열하게 하는 것이예요. 계속 비슷한 책들을 읽어 나가는 거죠.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어야 해요.”



✧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책의 한쪽에 적어 두자. 그와 연관이 깊은 책을 찾아 읽으며 지식을 확장해 나갈 것!

'툼툼이'형

좋아하는 음식을 옆에 놓아두고 툼툼이 먹는 것처럼 책도 가까운 곳에 두고 잠이 날 때마다 읽는 방법. 아무리 바빠도 책을 읽겠다는 의지!

첼리스트 장한나

“새로 읽기 시작한 책들은 침대 옆 탁자 또는 책상에 놓아두고 생각날 때마다 읽어요. 항상 손에 닿기 쉬운 곳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 책 한 권쯤은 항상 가방에 넣어 두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약속에 늦는 친구를 기다릴 때 한 번쯤 꺼내 읽고 싶을지 모르니까!

'곰곰이'형

책을 곰처럼 우직하게 곰곰 생각하며 읽는 방법. 뜻을 새기며 자세히 글을 읽는다. 책 내용을 베껴 쓰는 것도 책을 꼼꼼하게 읽는 방법이다.

소설가 성석제

“책을 읽다가 마음에 남는 곳은 연필을 들고 줄을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줄을 친 부분을 찾아서 메모를 하거나 또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책을 꼼꼼하게 읽으며 조금 더 넓고 깊은 관점이 생겼다면, 잊지 말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것!